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과그리스도교

자크엘뤼

자크엘뤼
아나키즘과그리스도교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머리말	3
제 1 장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아나키즘	9
제 2 장 아나키즘의 근거로서의 성서	32
부록	60
결론	72

는것이아닌가싶다. 마지막으로언급할것은그리스도교사상에미친아나키즘의세번째영향이다. 우리는국가의지배와는다른관점에서우리사회의현실을바라보는법을배워야한다. 우리시대의비극중하나는다른사람이“민족국가”를하나의규범으로인식하는데동의하는것처럼보이는것이다. 민족국가가결국마르크스주의자혁명들보다더강했다고생각하는것은놀라울뿐이다. 마르크스주의자혁명들은민족국가의구조와국가의방향을오히려더공고히하였던것이다. 끔찍하게도마호노를계승하고자하는의지는피로물들었다. 그리고마르크스주의국가또는자본주의국가는지배권이라는지배적인이데올로기를가졌다는면에서유사한것이다. 이는“유럽의건설”을완전히우스꽝스러운것으로만들어버렸다. 국가들이그지배권을포기하지않는데하나의유럽이어떻게가능하겠는가. 그러나국가적민족주의는세상을물들여버렸으며, 예를들어모든아프리카민족은식민지배에서벗어나자마자그들을지배했던국가형태를고스란히받아들였던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이것이아나키즘이그리스도인들에게보여주고자하는현실이다. 그리고그것은몹시도중요한현실이다.

* * *

더나아가야하는가? 나는도입부에서아나키스트를그리스도인으로만들의도도, 그리스도인들앞에서아나키즘을대단히중요한것으로선언할의도도없다고밝힌바있다! 그들을동일시할필요는없다. 그리고그리스도인들과스탈린주의자들의혼합을정당화하기위해“수렴이론”을꺼내려는것이아니다. 그러나나는공통되고명백한일반적인방향성이거기있음을이야기하고싶을뿐이다. 그것은우리가같은관점에서같은싸움을하고있다는것이다. 혼동할필요도없고환상을가질필요도없다. 우리는같은적, 같은위협이있으며그것은사실아무것도아니다! 우리를갈라놓는모든것은한편으로는하느님과예수그리스도를믿는신앙및그결과들이며, 또한편으로우리의차이는이미강조한것과같이“인간본성”에대한평가다. 우리사이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인식을분명히밝혀야한다. 나는이작은에세이에서다른것은다루려하지않았다.

교단으로서의로마가톨릭은대문자 Catholic, 보편적이라는뜻혹은보편교회를뜻하는가톨릭은소문자 catholic 을학술적으로구분하여사용한다. -편집자주

머리말

여기놓인질문은적잖이어려운것으로두가지측면에서오래전부터존재해왔던주제에관한것이다. 원래아나키스트들이란모든종류의종교(당연히이범주에는그리스도교도포함된다) 에대해적대적인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무질서의원천이자기존의권위를부정하는아나키스트들을혐오하는것은당연하다. 내가문제삼고자하는것은바로이단순하지만논의조차되지않았던주제이다. 1968 년혁명에서학생들이물었던것과같이아마도“내가어떤관점에서말하는지” 설명할필요가있을것같다! 나는그리스도인이지만태어나면서부터가족에게로부터신앙을물려받은그리스도인이아니라회심에의해그리스도인이된사람이다. 나는젊은시절파시스트운동을혐오했다. 1934 년 2 월 10 일, 나는불십자단 les Croix de Feu¹ 에반대하는시위를하기도했다. 당시지식적인면에서나는마르크스 (Karl Marx) 에게강한영향을받았고, 이영향은그의책들에서뿐만아니라내사적이고또가족적인 — 내아버지가 1929 년의경제위기 이래로실업자가되어 1930 년에도줄곧실업자신세였던것을나는기억한다! — 그리고개인적인상황들에서비롯한것이였다. 학생으로서나는경찰과맞서는투쟁에참여했고 (예를들어제즈 Jèze 파업²) 점차‘자본주의체제’보다도국가를더혐오하게되였다. “모든냉혈한괴물들보다더냉혈한것이국가”라고정의한니체의말은나에게사상의원천이되였다. 또한, 나는마르크스의분석들을추종하기는했지만 (그리고국가가사라진다음세상에도래할사회에대하고의예측을따르기는했지만!) 나와공산주의자들의관계는몹시나빳다. (그들이보기에모스크바의지령을전혀존중하지않았던나는프티부르주아였다. 그들은마르크스의사상에대해서는사실상아는것이없었다. 그들이읽은것이라고는『공산당선언 le Manifeste de 48』 이전부였다!) ‘모스크바공판’때나는그들과완전히결별했다. 트로츠키에게경도되어서가아니라 [크론슈타트 Cronstadt 의수병들³ 과마호노 (Makhno) 자유지구⁴ 는내가보기에진정혁명적이었으나안타깝게도짓밟혔다.] 레닌의위대한동지들이그들의이고발처럼반역자혹은반혁명분자등이라고는믿을수없었기때문이다. 그들을향한단죄는냉혈 괴물보다도더냉혈한선언으로느껴졌다. 또, 나는프로레타리아계급의독재가프로레타리아계급을대상으로한독재로변질되는것을어렵지않게깨달을수있었으며 — 눈을뜨고자마음먹은사람이었다면누구나 1935~1936 년에 20 년뒤가어떻게될것인지예측할수있었으리라그나는단언할수있다 — 더구나국제주의와평화주의같은

기본적인원칙들중단한줄조차도남아있지않음을깨달았다. 내생각에그것은반안국가주의가되어야했다.

한편, 마르크스를향한나의경의는다음과같은사실때문에식어버렸다. 즉, 나는마르크스의저서를읽는동시에덜인상적이었으나매우좋아했던프루동 (Proudhon) 의글들을읽었는데, 마르크스와프루동의논쟁에서프루동에대한마르크스의태도에화가났다. 결국나에게공산주의자들을아주싫어하게만든것은스페인내전기간중공산주의자들의태도및공산주의자들이자행한바르셀로나아나키스트들에대한끔찍한학살이었다. 여러동기 — 당시스페인의아나키스트들과가졌던접촉을포함해서 — 가나를아나키스트들과가까워지게했지만... 극복할수없는장애물이있었다. 나는그리스도인이었다. 이장애물이나의평생동안내앞에놓여있었다. 예를들어 1964 년에나는아나키즘에아주근접한운동에매혹된적이있었다. 그것은바로‘국제아나키즘학생운동’⁵⁾이었다. 나는기드보르 (Guy Debord) 와친분을가졌고한번은그에게단도직입적으로질문을던진적이있다. “내가당신의운동에참여해함께할수있겠습니까?” 그는동지들과상의해보겠다고했다. 그리고그는아주솔직하게다음과같이대답했다. “내가그리스도인이기때문에그들의운동에참여하지않을것이다.”나는내신앙을부인할수없었으므로거기에참여할수없었다. 또한편으로이두사상을“화해시키는”것은본질적으로불가능한것이였다. 그리스도인이면서‘사회주의자’가된다는것, 그것은이해가능한것으로 1900 년이래“사회적그리스도교”운동이존재해왔으며 1940 년까지성서의윤리적가르침과온건한사회주의 (S.F.I.O.⁶⁾ 의 A. Philip) 를조화시키는것이였다. 하지만물론그이상까지나아갈수는없었고, 그들사이에는절대적인부조화가있는것처럼보였다. 당시나는이들에대해영적이고지식적인탐구를시작했는데그것은그들을일치시키기위해서가아니라단순히정신분열에걸렸는지알아보기위해서였다! 그리고이상하게도연구를하면할수록더욱더성서의메시지 (예수의“듣기좋은”말들에국한되는것이아닌전체적인메시지를!) 를진지하게이해하게되었으며국가에복종하는것의부당함을알게되었고성서를통해서아나키즘의사상을안내받게되였다. 물론이것은지극히사적인견해로, 나는내사상을형성해온카를바르트 (Karl Bart) 의 (정치권력의정당성을항상옹호하는) 입장에서멀어져가고있었다. 하지만, 최근나는그같은의미에서진행된다른연구들이특히미국에서생겨나는신기한사조가발흥하는것을본바가있다. 그리스도교적인기원을가진아나키즘사상가북친 (Murray Bookchin), 특히 1987 년『그리스도교와아나키즘 Christianity and Anarchism』을쓴베르나드엘러 (Vernard Eller) 가그들이다. 다른한편으로다음에언급하는사람은아나키즘의선조라할만한데, 진정으로아나키스트는아니었지만, 예수에대해놀라운책을쓴바르뷔스 (H.

기때문에, 혹시나지켜왔거나귀찮지않았는지, 정말그에게도움이되었는지, 그리고하느님의말씀을담은책인성서를그저다른책들과비슷한것으로생각할수있지않을까하는기우때문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이주제는나의과제에포함되어있었던것이다. 그리고그리스도교의모든사상을다루려면이주제를다루지않을수없었다. 이것은아나키스트들에게도그리스도인들에게도반드시필요한것이다!

그리고지금...

한책의결론은어떻게내려야하는것일까? 이글은그리스도인들에게경각심을심어주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인듯싶다. (그리고그리스도인으로서나는그리스도인들을아나키스트그룹에끌어들여려는것이아니다.) 나에게있어우리가배운것은, 우선그리스도교유심론 Spiritualisme chrétien 을절대적으로거부하여야한다는것, 다시말해서하느님로달아나거나미래의삶으로달아나는것 (나는부활을믿지만, 그것의의미하는바는전혀도피와는관계가없다) 또는이땅의것들을멀시하는신비주의를거부하여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하느님은우리를이땅에내려놓으셨으며, 그것도그냥내려놓은것이아니라우리가거부할수없는어떤사명을지워서그렇게하셨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참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필요한것은이세상의지배적인이데올로기의함정에빠지지않는것이다! 나는이미교회가왕들아래서는군주주의자가되었으며, 나폴레옹아래서는제국주의자가, 공화국아래서는공화주의자가되었고지금교회 (적어도프로테스탄트교회) 는모든사람의사회주의로부터사회주의자가되었다고말하였다. 그리고이는바울로의가르침과마주친다. 이세상의이상을따라가지마십시오. 그러므로아나키즘은그리스도인들의순응주의적인유연성에훌륭한균형을달아줄수있다.

그러나또한다른전선, 즉이데올로기적이고정치적인세상과의전선에서그것은그들을받쳐줄난간이기도하다. 물론그것은그리스도인들이오늘날의우파가된다는의미가아니다. 우리는오늘날의우파가어떻게되었는지이미확인하지않았는가! 결국제 3 공화국의공화주의우파가그나마가치있는우파이지않았을까.⁶⁷⁾ 그것은더는우리의일은아니다. 우파는필연적으로초월자본주의의비대한승리로귀결되거나파시즘의나락으로떨어지게마련이다.⁶⁸⁾ 다른우파는없다. 각설하고, 마르크시즘과 20 세기그것의분파들에대해야기해보자. 모스크바정부, 공산주의자들이벌인바르셀로나의끔찍한대학살그리고독소獨蘇조약, 1940 년의수령주의에대한공산당의용의주도함, 그리고 1944 년공산주의자들의행동들이후로그리스도인이스탈린주의자가되는것은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우리의용감한목사들이스탈린식공산주의의미학을발견하고자했던때가바로그시기였다.) 아나키즘은더욱분명해보였고우리에게경각심을심어주었다. 아마그러한배움의경험이오늘날우리의귀에들리

자들에게 맞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으며, 모든 위계 질서 및 인간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모든 권력을 파괴하고자 했다고 믿는다.

여기 1985년 3월에 출간된 책 한권이 있다. “알바로울 쿠에 쇼 쿠에, 콜롬비아의 유일한 인디오 사제였던 그는 1984년 11월 암살당했고, 1982년에는 이미 그의 누이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죽기 전, 그는 제도에 의한 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구경꾼들이며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급진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1985년 11월의 『그리스도적 증언 Témoignage chrétien』을 보라.)

보젤 Bozel 과 폴라네 Planay 교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임 사제와 함께 현 세사 상황을 분석하고서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였다.

우리는 이 폭력이 은행, 군대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자울을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는 행위가 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고발하기에 이른다. 사람을 기아로 몰아 죽이는 이 살인자들의 암살에 대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히 군사 예산, 무기의 제조와 판매를 고발한다.

우리는 또한 특히 가난한 사람들 및 야당 정치인들이 겪는 경찰 폭력, 즉 투옥과 고문 등을 반대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주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 국가로부터의 이러한 폭력에 대한 거절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대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들의 행동을 되새긴다면 그리스도인들 및 아나키스트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기사가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출판된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의 영혼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가톨릭 본래의 의미에서의 가톨릭 신앙인들보다 더 열려 있다는 뜻일 것이다.

결론

글을 끝마치면서 나는 약간의 염려가 생기는데, 그것은 아나키스트 독자가 성서 본문에 대한 이러한 긴 분석을 읽으면서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이

Barbusee)⁷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아나키스트였던 예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나는 아나키즘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심오한 사회주의의 형태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나는 내가 최근 서있는 이 사상의 자리에도 달했다. 단 한번의 각성이나 깨달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혼자.

* * *

그러나 이 주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모든 종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안을 잘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누군가를 개종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해둔다! 나는 아나키스트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 순히 정적 함에서 우리나 온 것이 아니라 성서에 따른 태도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교회는 설교해왔다. “**정죄**를 받든지 **회심**을 하든지 선택하라.” 그리고 열정적인 사제들과 선교사들은 온 힘을 다해 선의의 신앙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여기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다. 물론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들이 있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잊은 원리가 한 가지 있다. 성서의 그 어떤 문장도 그 문장이 표현된 문맥, 이야기, 전개, 논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성서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신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회심과 신앙이라니?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것의 의미하는 바는 (관습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시 말해, 회심으로부터 어떤 삶의 방식에 연루되거나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섬김에 연루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의 특권이 전혀 아니며 추가되는 책임, 새로운 책무이다. 그러므로 개종주의에 따른 행동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나키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 역시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다시 말해 정치적인 목소리에 참여해야 한다면 우선으로 아나키즘을 피하지 않기를 권하는데, 이는 그 확신이 성서적 사고에 매우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세속적이고 뿌리 깊은 편견이 제거되지 않는 한 몇 년 안에 내 말이 일반적으론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한편,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상적인 견해를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길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역시 수 세기 동안 반대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의무나 규제의 세계로 사람을 들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유로운 삶

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내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에 보낸 편지들을 비롯하여 여러 편지들에서⁸⁾) 끊임없이 언급한 것이다. 결국, 세 번째로 언급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서 이 두 가지 사상 및 행동 그리고 두 가지 태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사회에서 더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되지 않은 이래로 그것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 난처한 점은 굳이 포기해가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그리스도교에 연결하려는 하나의 편집증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1945년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이 스탈린식 공산주의로 돌아서고 있었을 때,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개념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주권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같은 것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관련된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데 강조점을 두려고 했다. 1970년대에는 소위 해방 신학이라는 경향마저 출현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극단적으로는 (남아메리카의) 혁명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었다. “(그가 누구든)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들은 2천년 전의 그 사건⁹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00년 무렵에 개신교 합리주의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 그 전제는 단순했다. 과학은 곧 이성이며 곧 진리이고 이성이다 스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성서와 복음은 지켜야 하지만, 예컨대 하느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成肉身 하실 가능성 그리고 기적들, 부활 등 과학과 이성에 반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분을 버림으로써 (합리주의와) 일치를 이루려는 그 같은 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향의 수혜자가 된 것은 이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힘을 다해 각종 세미나 (나 역시 참석한 바 있는) 를 통해 무슬림들과 교류하려 할 때 그들은 둘 사이의 다름과 같은 유사점들을 힘주어 강조할 것이다. 한 분 하느님 (단일 신론의 종교¹⁰라는 점), 경전을 가진 종교¹¹ 등, 갈등의 주요한 쟁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라 불릴 수 있는지의 문이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한 것 같아 아나키즘과 성서적 신앙 사이의 어떤 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진정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로부터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그 관점을 고수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만일 정직해지고 싶다면 자신을 스스로 감추거나 숨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버리지 말고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야 한다. 이 글은 아나키스트가 보기에는 당황스럽거나 우스워 보이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겠지만, 나에게서는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쓴 바에 따른 오해를 지워버린다면 잘못된 그리스도교로 다시 돌아온다. 사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교적 경향들이 받아들여 온, 그리고 성서 메시지와는 공통점이 없는, 히브리 성서에 관련된, 우리가 “구약성서”라고 부르는 한 종류의 “문집”, 즉

어떤 크리스마스에는 시크교도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는 그들이 편자브지방에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지도자가 그러했듯 그 역시 폭력을 사용했지만, 그 폭력은 그의 아름다운 사상들에 덮여 버렸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비폭력은 란자델바스토 그리고 오늘날의 레흐바웬사와는 크게 다르다. 그들은 폭력을 두려워하며 폭력의 세상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권력의 폭력을 드러내 놓고 폭로하는 식으로 지배 권력에도 전하는 것을 거절한다.

1976년 우리는 말빌 Malville 시내를 뚫고 들어갔지만 란자델바스토는 CRS⁶⁵가 우리를 폭력 진압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 현자는 우리에게 순하게 굴이라고 요구하였다. CRS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권력 및 핵의 폭력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었다.

우리는 레흐바웬사가 폴란드에서 이끈 놀라운 ‘연대’ 운동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는 이러한 자유의 도약을 멈추어버린다. 왜냐하면 권력은 피를 흘리는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는 몇몇 선언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가의 일상적인 폭력은 계속된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는 투쟁에 의해 반드시 얻어지는 평화,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발을 추구한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면 자동으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가 물려서 지 않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선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마태오의 복음서』 16장을 보라)

란자델바스토는 CRS를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나치 친위대(SS) 같은 행위를 고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훈련에 의해 상부에 복종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책임을 지 버린 것이었다. 그와 반대로 예수는 인간성을 재발견하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그의 적들을 다룬다. 란자델바스토는 선언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 현자는 우리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며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와 반대로 예수는 그의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힘을 사용해야 하고 어느 곳에서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여야 하는지 말했던 것이다.

알바로 울쿠에 쇼쿠에 (Alvaro Ulcué Chocué) 그리고 예수

오늘날 나는 가톨릭 catholic 정신⁶⁶ — 다시 말해 보편적이고 각각의 인간에게서 확인되는 한 형제로서의 정신 — 에 고무된 어떤 대중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나자렛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확인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예수가 서로 사랑함으로 항상 지배

나는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잡고 폭력을 불사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정의할 수는 없으나 진정한 혁명을 일으키는데 있어 그런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억압받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힘으로 짓밟힐 수도 있고 권력이 전복되면 무기예의 한 권력의 맛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새로운 억압자들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폭력의 원천 (위계질서 및 두려움의 영) 을 사라지게 하는 정신적 힘을 발견하여야 한다. 지배자들이 더는 지배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지배자로 남고 자 폭력을 사용하도록 그들을 부추긴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돌아오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믿는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정당화하게 만든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핑계 거리를 찾는 것이며 끊임없이 반란-진압...의 지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폭력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싸우며 폭력에 맞서라고 말한다.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누가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내어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억압하는 사람들의 폭력 앞에서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한다. 한때 그분 자신도 그렇게 왼편 뺨을 맞고 오른편을 돌려댐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대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 하여 나를 때리느냐?” 그분은 사람들이 그에게 겪게 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또 말한다. “누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그가 원한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주인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억압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주인들을 위선자요 독사의 자식들 (도마뱀들)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인들은 더는 지배자의 영에 사로잡힌 채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마태오의 복음서』 23 장을 보라) 지배자는 그 가지배하는 동안 항상 우쭐대겠지만 우리는 그의 천박함을 무시하도록 하자. 아무도 무시당하면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는 자신의 우쭐댐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간디 (Gandhi), 란자델바스토 (Lanza del Vasto)⁶³, 레흐바웬사 (Lech Walesa)⁶⁴ 그리고 예수

간디를 예수와 같은 방식의 비폭력주의자로 보는 것은 허튼 소리다. 간디가 비폭력에 헌신했다면 그것은 국가인도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더 강한 권력인 “영국 권력”에 대항하여 비폭력을 사용했지만, 더 약한 권력에 대항해서는 전쟁 무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인도의 지도자들 즉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는 그를 암살하려던 인도인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했다.

복음서들 및 서간들이 존재한다. 모든 교회는 세심하게 그리고 자주 국가 권력들을 존중하고 지탱해왔으며, 순응주의를 커다란 미덕으로 여겨왔고, (하느님의 뜻에는 주인과 종이 있고 사회경제적 성공은 하느님의 축복의 외적인 표징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의 불의들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허용해왔으며, 또한 (진정 복음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원한다면 사실상 그리스도교 ‘윤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윤리로 변형시켜왔다. 인간을 완전한 생명으로 간주하거나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윤리의 잣대로 잘못들을 심판하기가 사실상 더 쉬운 법이다. 결국, 모든 교회는 지식과 권력을 유지하면서 복음의 정신과는 상반된 ‘성직’을 구축해온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성직구성원들을 ‘성직자’라고 불렀을 때 사목은 봉사였고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지난이 천년간 쌓여온 잘못된 전통들에서 비롯된 잘못들은 제거되어야 한다.¹² (여기서 나는 로마가톨릭을 고발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오류, 같은 잘못을 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네가 처음은 아니며 몇 가지들 그저 재발견하는 것일 뿐임을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 나는 “태초부터 감춰져 온 어떤 것들”의 베일을 벗기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내 입장이 그리스도교 내부의 어떤 새로운 사조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와 아나키즘이 만나는 성서적 ‘원리’들을, 그다음에는 처음 3 세기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 다룰 것이지만,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1,700 년간의 어둠을 뚫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사조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 ‘아나키즘’은 항상 존재해왔다! 지식적이거나 신비에 관계된 것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성서적 진리를 재발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테르툴리아누스 (Tertullien)(초창기), 프라돌치노 (Fra Dolcino),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çois d’Assise), 위클리프 (Wycliff), 루터 (Luther)(영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농민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한 두 잘못을 제외하고!), 라므네 (Lamenais), 존 보스트 (John Bost), 푸코의 샤를 (Charles de Foucault)...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 나는 베르나드 엘러의 책¹³을 참조한다. 예를 들어 그 책에서는 권력을 부정하고 소위 “탈정치성”이 아닌 아나키즘을 드러내는 등 진정한 재세례 anabaptism 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를 지닌다. “권위들”은 사악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도구로서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선하게 행동하고 결코 더는 사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 정치적 권위들에 순종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 및 권위들 바깥에 따로 자율적인 공동체들을 조직하여야 한다.” 놀랍게도 블룸하르트

(Blumhart) 라는 비범한 사람은 19 세기 말 엄격하게 아나키즘적 성격을 지닌 그리스도교를 만들어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그는 극단적인 좌파였지만 권력 장악에 대한 논쟁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극좌파’ 의회의 석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인간으로서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정치가 인간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정치는 단죄 받아야 합니다.”¹⁴ “다음과 같은 것이 진정한 아나키즘입니다. 인간 그 자체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블룸하트는 그 정당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실존주의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의 뒤를 잇는 10 세기 중반 아나키즘 노선의 목소리였지만, 어떤 권력의 유혹에도 걸려들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오늘날 개인주의자로 폄하되고 저평가되어 있다. 그가 심지어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중 및 권력마저도 (!) 씩없이 비난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의 문장이 이것을 증명한다. “어떠한, 어떠한 잘못, 어떠한 범죄도 권력에 의해서 질러진 그것들처럼 하느님 앞에서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것은 ‘공적公的’이라고 하나 비인격적이며 한 개인에게서 질러지는 가장 심각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많은 저작에서도 아나키즘적 성격이 발견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키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뿐이다.¹⁴ 결국 설득력이 있는 베르나드 엘러의 논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20 세기가 왕위 대 신학자인 카를 바르트는 사회주의자이기 이전에 아나키스트였으며, 공산주의에 대해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 그 입장을 철회했다. 이러한 단순한 공통점들은 내 연구가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단지에 외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거장들, 지식인들, 신학자들 외에도 대중적인 운동들, 집단적 운동을 촉발시키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흥했던 민중의 또 다른 성격의 신앙들, 정통 교회들에서 선포된 적 있던 또 다른 진실들, 그리고 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근거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을 유지했던, 한편으로 이단으로 몰리지 않으면서 도스 캔들을 일으키지 않고도 (!) 그것을 실천했던 겸손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어느 순간 재발견된 어떤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해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자취는 그럼에도 알려졌다.)¹⁵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교의 신성한 교권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복음과 성서 전체에서 비롯한 새로운 운동들이 승리를 거둘 때마다 매우 빨리 변질하여 공적 권위에 대한 순응주의로 바뀌고 는 했던 것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후의 작은 형제회 수사들이 그러했고, 루터 이후의 루터교도들이 그러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위대한 교회의 영광, 주교들의 회칙들, 또는 개신교 권력의 정치적 입장

그러므로 예수는 나에게 하느님이며 내가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Pierre-Joseph Proudhon) 의 『빈곤의 철학 La Philosophie de la misère』 제 3 장을 읽으며 나는 그를 매우 잘 이해하게 된다. 그가 바라본 대상은 오직 한 분이며 지고한 존재이자 인간의 지배자인 신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신은 그의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적대적인 존재로서다... 신은 결국 무엇으로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 나는 모를 수 있다면 모른 채로 있으려나... 어느 날 내가 신과 화해하게 된다면 이 화해는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어 더 있을 것이 없을 만큼이나 불가능하기에 내가 죽기까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철학들 및 신학들의 헛됨

결국,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으며, 의미 있는 것은 삶이 주는 맛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상의 대가임을 자처하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논쟁은 헛되다.

타르수스 Tarse 의 바울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제 3 장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논증은 “바람과 같은 뿐이며... 그들은 자신의 교묘함의 덫에 걸렸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그가 생각하던 민주주의를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 게 되었으니 말이다.

예수의 친구였던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 제 4 장에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왔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났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누군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누군가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그의 형제가 빈곤에 빠진 것을 보고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느님이 그에게 거하신다 하겠는가”라고 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하여 굳이 묘사할 필요 없이 하느님을 설명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를 우리의 하느님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그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느님이 될 만한 자격 (전능함, 초월성, 영원성 등등) 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영안에서 살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삶의 맛을 선사하신, 모든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태도에 의해 우리는 그를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혁명을 위하여? 어떤 혁명인가?

인간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인간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간주한 적도 없다; 예수에게 있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는 어떠한 위계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며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경쟁, 우월성, 동등성, 열등성의 언어로부터만 사고가 가능한 종교인들은 예수가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하였기에 그를 고발한다. 그들은 인간 예수에게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느님이 됨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성서의) 창세기 기자는 하느님과 함께 삶을 즐기고 생명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선과 악을 알아 신들처럼 되고 자아심을 품은 인간의 잘못을 본다. 그 자신과 자신의 신분에 집착한 인간의 이러한 태도는 모든 불행의 시초가 된다. 인간은 고독하고 별거 벗었으며 부끄러운 존재, 서로 고발하며 자기를 위해 고통스럽게 일하는 존재가 되어 죽음을 씨 뿌리고서로 지배하려고 싸우거나 두려움에서로 잡혀 지배를 받아 들인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은 인간에게 하느님과 연합하여 살라고 말한다; 그러나 권위들이 지배하는 인간은 다른 이들과 싸우며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성서 사무엘상 8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건의하였다. …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 …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 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 십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양떼에서도 십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야 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어째서인가?

나는 유일하신 하느님을 믿으며 이 하느님은 인간 예수다. 많은 사람이 그는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가 살아 있다고 대답하며 거기에는 결정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 나와 함께 살아 계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의 의미는 내가 삶을 맛본다는 것이며, 내가 그의 현존을 잊는 그 시간에는 나는 더는 살아 있지도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삶을 선택한다.

표명 등뿐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었던 내장인은 내가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할 때 마다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는 했다. “그건 자네의 말이야. 자네만 그런 이야기를 하네.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말도 자네 말과는 반대인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다! 신심 깊은 “은밀한 흐름들”은 끊임 없이 존재해 왔으며 (그들이 신심 깊었던 만큼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이야말로 성서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들이었다. 기타 화려함, 구경거리, 공적인 선언들, 교계 계급 구조 (예수는 어떤 것도 만든 적이 없는 데도!), 제도적 권위 (예언자들은 어떤 종류의 제도적 권위를만든 적이 없는 데도), 법률 체계 (진정한 하느님의 대표자들은 법률 같은 것에 의지한 적이 없는 데도) 등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사회학적이며 제도적인 성격일 뿐 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교회이며, 그러므로 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들은 이렇게 교회의 드러난 것들을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나키스트들이 이러한 종류의 그리스도교를 거부한 것은 옳았으며, 키에르케고르 같은 명백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러한 것들을 더 격렬하게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단순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의미의 ‘견해’이며, 공적인 교회와 소위 “사회학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 타인들에 대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 그리스도교의 몇몇 성격을 도용했던 19 세기 교회의 고용주 (후원자) 들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점차 떠나고 있어 점점 수소가 줄어드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반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정당화하지 않고서 몇몇 오해들을 걷어내고자 한다.

제 1 장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아나키즘

1. 어떤 아나키즘을 말하는가?

나는 물론 아나키즘에도 여러 형태와 사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기서는 먼저 단순히 내가 어떤 아나키즘을 지칭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가 지목하는 것은, 나는 폭력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행동의 수단으로 폭력을 불사하는 니힐리스트 Nihilist 들, 또는 아나키스트들은 수용할 수 없다. 테러 또는 폭력에 의지

하는것은확실히이해는할수있다. 스무살무렵나는파리의증권거래소에서하루를보낸적이었는데이렇게중얼거렸던것을기억한다. “자, 이건물에폭탄하나를설치하면자본주의전체를날려버리는못하더라도분명상징과경고의가치는있을거야!”물론나는어디서폭탄을구해야할지전혀알지도못했기에그렇게하지못했다! 폭력에의지하는것은세가지상황에서가능한것처럼보인다. 우선, 러시아니힐리스트들의교리가있었다. 권력자들, 성직자들, 장군들, 경찰간부들을조직적으로제거하기시작한다면결국그들의직위들에공백이생기게되고국가는과멸되어버릴것이며쓰러뜨리기쉬워진다.... 이것은다수의현존하는테러리스트들이다소간지닌생각이다. 하지만이것은그권력자들... 그리고사회의저항및반응능력과소평가한것이다!

두번째상황은모든행동수단이무위로돌아가거나점점더강고해지는정부권력앞에서그리고흔들림없는경제시스템앞에서(그러므로다국적기업의계획을저지할수도있는?) ‘체제’의공고함이무엇인지깊이알게되었거나점점더순응적이되어가는사회앞에서무력함을느끼게될때로, 절망의부르짖음으로써그러한억압들에대한저항과증오를공개적으로표시하려는극단적인행동으로서의폭력이다. “그것은현존하는절망이부르짖는소리다.”(J. Rictus) 그러나그것은또한다른행동의방법이없다는것, 다른희망의여지가없다는말이기도하다. 결국세번째측면은내가암시했던상징체계와장후이다. 상징적수단. 당신의생각보다당신의사회가훨씬깨지기쉽다는경고이자그것을침식해들어가는비밀스러운힘들이존재한다는것이다. 동기가무엇이든나는이러한폭력과테러에반대한다. 그리고이는다음의두수준에서그렇다. 첫번째는단순히전략적이다! 비폭력적인운동들은제대로만수행된다면(하지만, 이는잘훈련되어야하고잘짜인전략에의한것이여야한다!), 폭력적인운동들보다(진정한혁명의시작에관계된것이아니라면!) 훨씬효율적이라는것을사람들은경험하기시작한다. 간디의성공을굳이기억할필요는없다. 우리에게더가까운한예로마틴루터킹(Martin Luther King, Jr.) 이미국흑인들의인권을진전시킨주목할만한예가있었고, 반대로흑인무슬림들과블랙팬서 Black Panther 들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폭력에의했지만, 오히려마틴루터킹의성공에먹칠했을뿐언어낸것은하나도없었다. 마찬가지로 1956 년의베를린, 헝가리, 그리고체코슬로바키아의모든폭력운동이실패했던데반해, 레흐바웬사(Lech Wałęsa) 는수십년간자신의노동조합에제대로비폭력훈련을시켜결국정부를굴복시켰다. 다음은 1900~1910 년의위대한조합활동가들의구호중하나이다. “파업은 Yes, 하지만폭력은 No.”결국(그러나물론이는많은사람이의문을제기할사안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줄루족의대추장부틀레지(Buthlezi) 는완전히비폭력전략을가지고만델라(코사족 Xhosa 의)에맞섰지만, 내가가진정보에따르면 A.N.C.¹⁶에의해저질러진지리멸렬

로마가톨릭사제이면서도아나키스트가된다는것

아드리앵뒤쇼살 (ADRIEN DUCHOSAL)

나는스무살부터사제의일을수행하였고인구 2 천의한교구의주임사제이기까지했다. 나는한기계제작회사에서일주일에사흘간일한다.

여기서나는많은사람들에게아나키스트로알려졌다. “그리스도인과아나키스트, 이두실천을어떻게일치시킬수있습니까?”라는질문을받는다.

나는그리스도신앙과아나키즘의확신간에어떠한갈등도느끼지못할뿐만아니라나자렛예수에대한나의지식은나를아나키즘으로인도하며때때로그것을실천할용기마저부여한다.

“신도없고주인도없다.”그리고“나는민나다, 전능하신하느님아버지”라고하는이두확신은내마음깊숙이자리잡는다.

어떤사람도다른사람의주인으로존재하거나다른사람보다우월한자로존재할수없으며아무도자신의의지를다른이에게강요할수없고, 나는완전히지고至高한주주로서의하느님에대해서는아는바없다.

사람들사이의위계질서를반대함

장피에르사르트르는각각의인간존재의유일한가치에대해말했다. “인간은어떠한가치를지녔건간에다른모든사람과같은가치를지녔다.”

그이전에예수는사람들사이에어떠한차이도두지않으셨고권력자들은예수의이러한태도를불편해하여그를죽이고자하며이렇게말하였다. “당신은당신이하는말이무엇인지모르고있소. 당신은인간들의차이를보지않기때문이요.”참고. 마태오의복음서 22 장

각자의삶은사회를구성하는모든법이전에존재한다; 복음서들, 마태오, 마르코, 루카그리고요한의복음서는권위들에대항한예수의이야기들로그득하다. 그는끊임없이인생들에염려를가져오는율법들을어긴다.

한예로이러한정신에서우리는통행의자유를허가하는서명을많은사람에게서받았다. 그것은다음의요구에대한것이다. “사하로프⁶²의아내엘레나보너(Elena Bonner) 는그녀의건강에필요하다면서방으로건너갈수있어야한다. 아프리카의굶주린사람들은그들의삶에필요하다면유럽으로건너올수있어야한다.”

사람들과하느님사이의위계질서에반대함

적어도인간예수가“아버지”라고부르며우리에게도그렇게부르라고명하는하느님은결코주주로자신을나타내신적이없으며, 자신의의지를

거나 출교하십시오. 예비자또는 신자가 군인이 되고자 하거든 교회는 그를 출교하여야 합니다. 그가 하느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집단적 학살의 시대에 처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군인성인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간과할 수 없는 반전이 찾아온다. 기원후 313년의 엘비라 Elvire 교구 회의는 공직을 받아들이려는 모든 신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결정한다. 모든 권력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성을 내포한다는 것으로 단죄된 것이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312~313)이다. 전설이 된 회심이었으나 정치적 계산의 결실이었음이 분명한 회심으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권력을 확실히 하고자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지성인들을 포함한 대중들과 귀족들은 이미 옛 종교로부터 떠나 있었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있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에 가담했으며,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교회는 뒷에 걸렸다. 그것은 사실상 스스로 뒷에 걸려 든 것이었다! 당시 교회는 귀족들이 만든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신학자들은 이것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4세기 후반 바실리우스(Basile)는 전쟁 중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이며 전쟁에 참여한 병사는 3년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 군인은 결국 완전히 출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항하는 소수의견이 되고 만다.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교가 공식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그리고 교회가 거대한 특권을 얻게 되었기에 결국 굴복하였다.

314년 황제가 소집한 아를르 Arles 교구 회의에서는 국가에 대한 봉사 및 군대 복무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뒤바뀐다. 이 회의의 세 번째 “법령”은 군대 복무를 거절하는 병사 또는 상관에게 항명하는 병사는 출교된다는 것이었다. 일곱 번째 법령은 국가의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을 합법화 하였으며, 이 교행 위만을 금지할 뿐이었다. (예를 들어 황제에 배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 관리들 및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된 것은 교회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뿐이었다. (이 훈련은 또한 모든 살인과 폭력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몇몇 해석자들은 아를르 회의가 금지한 것은 살인뿐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거기에 군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다! 사실 상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처음의 근본적이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교회로부터 원했고 이 314년의 회의가 끝내 버린 것은 반국가주의적이고 반군국주의적이었던 그리스도교 운동이었고,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아나키즘이었다.

☒ 증언:

한 폭력 (때때로 흑인들 간에도 일어난다) 보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제거를 위해 비할 데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교적인 영역에 속한다. 성서의 관점에서 본 상식에 따르면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몹시 당황스럽게 하는 구약 성서의 전쟁들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¹⁷ 하지만 권력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항상 권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에 맞서 투쟁해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람들은 “왕좌 (왕권) 와 제단 (교회)” 사이의 동맹이 있었던 지난 십수 세기간이 (성서) 텍스트들을 덮어두어 왔다. 게다가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기 보다는 한국가의 수장으로서 더 잘 처신해 왔다.¹⁸ 만일 내가 폭력적인 아나키즘을 배제시키면, 평화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자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이며 반민주적인 (다시 말해 부르주아 국가의 변조된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아나키즘이 남는데, 이 아나키즘은 모든 권력에 대한 실제적인 전복과 기층 민에 의한 발언과 자율 조직을 목적으로 삼아서 설득 수단을 통해, 또 소집단과 조직망의 생성을 통해 활동하면서 거점과 압제를 고발한다. 이 모든 것은 바쿠닌에 매우 가깝지만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도 투표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 일원으로 서 견해를 밝혀야 하는가? 나는 수많은 아나키즘 대표자들에 동의하지만, 그 두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투표한다는 것 그 자체로의 심의 여지 없이 권력과 부르주아지에 의해 주도되는 잘못된 민주주의에 이미 참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파에 투표하든 좌파에 투표하든 결과는 똑같다. 정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계화된 구조를 수용한다는 뜻이며 다시 말해 권력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권력을 얻으면 어떤 이유에서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밀레랑 Millerand 사건¹⁹으로부터 1900~1910년 사이에 사회주의자들과 조합 책임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때, 사람들은 그들이 조합주의 Syndicalisme 의 가장 나쁜 적들로 변해 가는 것을 확인했다. 클레망소 (Georges Clémenceau)²⁰와 브리앙 (Aristide Briand)²¹의 예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아나키즘 및 환경주의자들에 가장 가까울 수 있었던 운동을 하던 내가 정치적으로 참여에 항상 반대했던 이유였다. 나는 독일 녹색당 운동에 전적으로 반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에서 환경주의자들의 정치적 참여의 결과가 어땠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경쟁하는 여러 조합 운동 간 분열이 주요한 “세명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환경주의자들 간 공연된 적대감, 잘못된 질문들 (예를 들어 전략 전술 같은 것들) 을 무찌르기 위한 다른 목표의식의 상실, 잘못된 선거 운동을 위한 비용의 낭비 등인데, 결국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 환경주의자들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그들 영향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하는행동이였다! 우리사회에서중요한어떤것도변화시킬수 없는정치적인게임에참여하는것은강하게거부해야한다. 우리는정치적 목소리를통하여그것이무엇이든간에변화시킬수있다는희망으로이해 관계들과기구들을서로통합시키려고하지만그것은너무복잡한일이다.

다국적기업들에관련된다음의한예시만들어도충분하다. 좌파는집권하더라도전세계적인경제체제의연대에막혀한국가의경제체제를바꿀수없다. 단지권력에도달하기위해그런말을한것은아니었겠지만, 혁명이전세계적이어야한다고말했던사람들에게도일리는있었다. 그러면 ‘행동’하지말아야하는가? 이것은급진적인주제를불들어온사람들이늘들어온질문이다. 그것은오직정치적인행위만이유일한행동의방식이라고고는것처럼들린다! 나는아나키즘이우선‘양심에의한거부’라는뜻을내포한다고믿는다. 우리사회를구성하는자본주의 (또는퇴화해버린사회주의) 그리고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공산주의든, 백인이든황인이든흑인이든간에마찬가지로) 에있어서, 양심에의한거부는병역에만한정될수없으며우리사회에부과된모든강요와의무들에대해서도유효하다. 세금을거부하는것, 백신을거부하는것, 의무교육을거부하는것등역시마찬가지다. 물론나는교육제도에호의적이다! 그러나아이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교육이라는조건에서, 그리고분명하아이들이주어진지식을배우기위한교육일때, 의무가아니라는조건에서그러하다. 교육형태는어린이의재능에근거해서구성되어야한다.

백신의경우, 하나의주목할만한예가있다. 한친구 (법학자이자수학학사이고아나키스트또는그에게가까운...) 가귀농을결심했다. 그는아주거친지방인오프루아르 Haute Roire 의고원에서십년전부터목축을하고있다. 그런데 (내가이이야기를굳이하는이유는바로이것이다) 다른가축때들과멀리떨어져있을뿐아니라정성을다해기른그의가축이아프타열병에걸릴이유가전혀없다고믿었기때문에그는아프타열병백신을자신의가축에게접종해야하는의무를거부했다. 그리고일어난일들은매우흥미롭다. 정부수의당국으로부터조사를받았고벌금을부과받았다. 게다가특히백신의사고및위험들에대한중요한자료를준비하다가법정에고발당하기까지했다. 그는처음에는유죄판결을받았다. 하지만항소했고, 생물학자들및주요수의학자들의보고서를얻어냈으며, 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는쾌거를이루어냈다. 이는최근의숨막히는규제에서자유공간을찾아내아주좋은예시이다. 그러나그러한것들을위해서는먼저마음으로그것을원해야하며행동을분산시켜서는안된다. 논점을잘찾아서공격하고당국과규제를물리서게하며이기는것이다.

우리는 코트아키텐 Côte Aquitaine 개발을위한정부당국간현합 M.I.A.C.A. 에대해투쟁한경험이있다. 갖은노력을다해지역주민들에게는재앙이되었을몇몇계획들을무산시킬수있었지만, 국가최고행정재

군장교를모집하기위하여외국인, 즉“야만인”을찾아야했다! 근대의역사가는그리스도인들의이러한일반적인기피가 4 세기이후로마교회퇴의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였다고말할정도였다.

* * *

그러나 3 세기이전의실천으로돌아가자. 그것은테르툴리아누스의생각으로대표되는것으로서국가및제국은반드시반그리스도적이므로곧하느님의적이라고말하는책들의가르침에따라양심에의한완전한거부를권고하는것이였다. 다음의인상적인구절을보라. “황제들이그리스도인이되는것이가능했거나그들이세상에서필요없는존재였다면그들은벌써그리스도인이되었을것이다.”(신약성서에서세상이란모든하느님의적대적인것들을의미하는표현이다!) 실제로이러한거부 (황제에배참석을거부하는것은논외로하더라도) 로인해문제는군대에서일어났다.

이주제에대해서는역사가들의견해가크게엇갈린다. (드물지만) 그리스도인군인들이있었다는기록이남아있으나아주적은수였던것으로보인다. (그중일부는징집된병사들이었을것이다.) 기원후 150 년까지는군인이었으나후에그리스도인이된사람들은군대를떠났으며, 처음부터그리스도인이었던사람들은결코입대하였던적이없다고보는것이더확실할것이다. “교회지도자들과전체그리스도공동체가탐탁지않게여겼음에도”그리스도인병사의수는 3 세기후반부터증가하기시작한다. (RYAN, Le Refus du service militaire par les chrétiens, 영어로된책.) 한편그리스도인병사의수가증가했을때에도문제는있었다! 공식행사때병사가머리에월계관쓰기를거절하는것이한예이다. 그와마찬가지로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는어느날미래를점치려고희생제물을드렸으나실패하였다. 거기서지목된사람들은바로그리스도인병사들로십자성호를그음으로써실패를유도하였다는것이였다! 기원후 250 년경이러한예배는사실이었고강요에의한것이였으며선택의여지는없었다. 그리고 2 세기후반이후“군인순교자”가강조되기시작하는데, 다시말해강제로징집된그리스도인병사가전쟁중에이교예배를거절하여죽임을당하는경우가생겨났다는것이다. 기록된바로는사형집행자로고용된병사들이동료를처형해야하자갑자기회심하여칼을버렸다는이야기조차있었다! 락탄티우스또는테르툴리아누스에의해인용된예들은끝이없다. 그리고집단적으로반반군국주의를표방한그리스도인들도있었다. 여기공식문서가있다. 3 세기초교회의‘규칙’을담은“히폴리투스에의한사도전승”에서는, “칼의권력을가진자또는도시의관리는그직에서사임하게하

지금까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말한 것처럼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서 본문들을 고찰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증언이나 견해가 아닌 것은 이 본문들이 교회 다수에 의해 인정된 ‘거룩한 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사조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3 백년간 “반역의 시민”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사상을 실제로 적용할 것이다. 양심에 의한 거부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극단적인 갈등의 쟁점이자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을 지나칠 수는 없다. 우선 2 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사상의 모든 비판관 켈수스는 (그의 연설 원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라는 종류의 적”이며 그들이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로마의 질서에 반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낳은 이 “인간 종류”를 증오했다는 생각을 발전시킨다.

두 번째 언급은 조금 더 나중의 것으로 그리스도교가 소종파로 제국에 침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관리가 되거나 군대의 장이 되어 제국을 안으로부터 약화시킨다는 고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탄식한 이유였다. 한 세기 전부터 로마의 행정 조직은 퇴보했으며 로마의 군대는 전선에서 패배를 거듭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율리아누스는 우리에게 더는 효력이 없는 한 예시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더는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존경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로마를 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로마가 쇠퇴하게 된 이유이다. 예전의 신들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로마는 그 위대함을 되찾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쯤하겠지만, 제국 후기의 모든 역사가가 알고 있던 정확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문제에서 도군사 문제에서도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 수준에서 그러하다. 첫 번째로, 수백 년간 모든 로마의 지성인들은 도시와 제국의 법제도와 조직을 만들 고 발전 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3 세기부터 제국의 지성인들은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학에 열의를 가졌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관리로서도 군장교로서도 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도교가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믿어졌던 이상 (우선 도시의 빈민들, 그리고 해방 노예들, 노예들의 순서로 확산하였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교가 부유한 ‘계층’ 및 ‘지배층’으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문서에서 사실상 도시로부터 ‘원로원의원’도, 지방으로부터 지방 장관도, 군사 관리도… 모집할 수 없었음이나 나타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러한 현상을 좋아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제국 이원로원의원이 되라고 강요했을 때 (다시 말해도 시 하나에 시장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 많은 사람이 시골로 멀리 도망가서 농장 주인으로 살아가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방에 살 곳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다!) 군대에는 황제들이

판소 등등에 수없이 소송을 걸어야 했다.²² 물론 이는 아주 미미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다수가 주의 깊게 동참한다면 국가의 권력 남용을 저지할 수 있다. 데페르 (Gaston Defferre) 에 의해 요란하게 진행된 이른 ‘분권화’가 자유의 수호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공공의 적은 국가가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지방 정부들이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우리가 저항해야 할 권력은 어디에나 있으며 물론 경찰 또는 사법 당국에 역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수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거짓말들을 벗겨내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 체제들이 당연히 하게 생각하는 법치 국가론 Etat de droit 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임을 밝혀내야 한다. 국가는 그 자신의 규칙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의 모든 선물에 대해 해의 심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누가 돈을 대고 누가 명령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나는 1956 년 젊은 이들의 부적응에 방클레프들에 대해 이야기 했던 주목할 만한 시도에 대해 생각한다. (대체로 적응을 못하는 것은 젊은 이들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라는 내용의 이야기였다.)²⁴ 그 클레프들이 여러 곳에서 재정 지원을 받았고 보조금도 받았던 만큼 당연히 아주 잘 진행되었고 성과도 좋았지만, 그것은 젊은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킨다는 측면에서 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파괴적인 활동들 (가죽점퍼를 입고 마약을 하는 등등) 을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는 측면에서였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모루아 (Mauroy) 장관의 주도 아래 예방 활동이 창안되었으며, 국가 예방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강조점은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해 보이는 행동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금에 대한 거부다. 납세자가 세금을 더는 내지 않기로 하거나 적어도 군사 지출에 사용되는 퍼센티지의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한다면 거기 아무런 문제도 없음을 자명하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잡혀 가는 등의 고초를 겪을 것이다. 그러할 시도가 가능해 지려면 시도를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한다. 만일 천 명 또는 이천 명 정도의 납세자가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국가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으며 특히 미디어를 활용하기까지 한다면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오랜 준비, 캠페인, 팸플릿 등이 필요하다. 또한, 즉시 실현할 수 있지만, 여러 참여자들이 요구되는 한에는 공공 교육 바깥에서 그러나 또한 ‘공인된’ 사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에 의해 조직되는 학교다. 그것은 단순히 교원 자격증을 가진 몇 명의 지도로 그들이 아는 분야에 대해 확신하는 몇 십 명 정도의 부모가 그들끼리만 조직하기 로마 움먹어도 가능한 학교다. 콩-방디 (Cohn-Bendit) 수사에 의해 세워진 생-나제르 Saint-Nasaire 고등학교는 다음 세 참여자의 주도로 움직인다. 학생, 부모, 교사… 이것이 가능해 지려면 순수하게 개인적인 계획 위에서 권력 (정

치권력, 금권, 행정부의권력, 사법부의권력등) 을배제하고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재미있다고여기는한예를제시하려고한다. 전쟁중우리는시골로피난을간적이있었다. 2 년후, 우리는그시골마을사람들의실패와우정을얻게되었다. 그런데한신기한이야기가시작되었다. 내가법을공부했다는것을알았던주민들은내게법률상담을하러오기시작했을뿐아니라분쟁과소송을해결해달라는의뢰까지했다! 그러니까나는변호사, 조정판사그리고공증인에이르는역할을담당했다. 물론이일들(무료였다!) 은법의관점에서본다면아무가치없는일이겠으나이해당사자들에게는아주중요한일이었다! 또한, 문제와분쟁등등의해결규정을만들어모두의사인을받았을때, 모든사람은이규정을정부의법령들만큼이나권위있는것으로인정했다... 물론권력을거부한이지엽적이고보잘것없는사례에서아나키즘이데올로기의확산이필요하다는것을상기할수있다.

그런데최근정치사상의절대적인공백속에있는우리시대는이러한예시에매우관심이있다고나는생각한다. 아직도 19 세기에살고있다고 스스로착각하는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적인어떤것도가지고있지않은사회주의자들, 그리고후기스탈린주의에서조금도벗어나지못하는웃기는공산주의자들사이에서, 그리고동업조합의방어²⁵ 라는이해관계외에는어떤다른관심도없는노동조합들앞에서, 이러한거대한(정치사상의) 공백속에서더욱근대화되고받아들일만한정치적인입장들(환경주의자들중일부및조합관리주의자들중의몇몇) 과연대한다면, 아나키즘은일어설기회를얻을수있다.

* * *

내생각은여러아나키즘의태도중하나이며, 나는아나키즘적투쟁이선이라고민는다. 진짜아나키즘과내입장은어떤점에서차이가있을까? 오랜세월우리의관심사였던‘종교적인’문제를제외한다면, 차이점들은 대체로다음과같을것이다. 진짜아나키즘은국가나권력, 기관, 위계질서 등이없는아나키사회가실제로현실화될수있다고민지만, 나는그렇지않다고민는다. 다시말해, 아나키즘투쟁, 아나키사회를향한투쟁이문제의본질이며, 그러한사회가실제로실현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그것은다음의두가지이유때문인데, 두번째이유부터설명하겠다. 사실상권위또는제도가없는사회의이미지또는희망은, 인간은나면서부터선하며그것을부패시키는것은사회라는믿음에서비롯한것이다. 극단적으로는다음과같은선언도있었다. “절도를부추기는존재는바로경찰이며, 경

다.(베드로는사람에게순종하는것보다하느님에게순종하는것이옳다고말한다.) 그러나이러한동기를정치제도에속한인간들은이해할수없을것이다.⁶⁰

그러나마이오의저작중가장중요한것은결국이것이다. 바울로는자신이이미여러번투옥되었다고 썼다. “그는정치적인간들과순진한사람들을혼동하지않는다!”그리고그는로마당국에의해죽임을당한다. “바울로의어려웠던삶과죽음은이 8 장을율법에서자유롭게한다.”다른한편으로마이오는이 8 장을편지의일반적인컨텍스트에서이해하려하지만나로서는이해하기어려운것이, 그배경이상당히모호하기때문이다. 바울로의편지는완전히“인류 — 역사에 — 있어서의 — 하느님의 — 구원의 —正義”를보여주려는시도라는것이다. 그리고바울로는인간현실의모든면면속에서그것을보여주려고한다. 거기에는역사를만드는교회및이스라엘백성(바울로는줄곧그것에대해말한다) 외에는없다! 정치도있고인간사회도있지만, 바울로는여기서하느님계획의일부인이‘폴리스’(하느님의도성으로서의교회및이스라엘백성-역사주) 가하느님의뜻과동떨어져있지않으며그의구원의정의에참여할수있음을말하고자한다. 마이오는때때로그리스도인들과비그리스도인들의마주침은그리스도인이된이방인관리의체제하에서필수적이었던것으로보였음을강조하며묻는다. 재판관이면서로그리스도인이, 세금징수원이면서로그리스도인이될수있는가? 사실바울로는“경비대사람들”(필립비 1,13) 과“카이사르의집안사람들”(필립비 4,22) 에대해말한다. 그들의직업은무엇이었는데? 의심의여지없이그리스도인로마공무원은영적인어려움에직면해있었을것이다! 그리고마이오는구체적으로우리가앞서다른주제를강조한다. 그것은권력에대한초기그리스도인들의일반적인문제제기다. 그러므로바울로는여기에좀더강조점을‘덧붙이기’를원한다. “사회구조, 관리들그리고네로까지도하느님의정의의역동성안에포함되었으며그것은이스라엘또는교회와다른방식으로그려졌다. 그것은악마가아니라마지막의때하느님으로부터비롯된것이였다. 그러므로그리스도인들은그것을거부하지않아도된다...”마이오는강조한다. “그럼에도바울로는악마로부터조종당하는체제에대해서는어떠한대답도하지않으며, 그렇지않으면관리는‘항상선을 — 위하여 — 일하는사람’이다.”그리고그가“악을 — 위하여 — 일하는 — 사람”이된다면우리는그와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어떤경우에도“진정한순종은어떤순종을베끼는데있지않다!”

양심에의한거부자들⁶¹

⁶¹ 이단락에서는 J.-M. HORNUS 의놀랄만한저작을요약하는것으로만족할것이다: *Evangelie et Laborum*, Lalo, 1960.

죄, 그의 긍정이자 그의 부정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기존 질서 안에서 악한 것이 정말 악하다고 할 유일한 기준을 가진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긍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하느님을 구실삼을 권리가 없다! 그것은 하느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은 오직 하느님 앞에만 놓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기존의/한정된) 질서를 오직 하느님의 눈앞에 놓는다. 그것은 권위들에 대한 모든 열광, 올바른 관계, 환상, 열정 등을 걷어버린다! 그리고 카를 바르트는 (매우 자유롭게!) 12 장 10 절을 인용한다. 하느님은 “정의의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준엄한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지난 세월 동안 교회들이 국가에 경의를 표하며 인간의 대의를 배신하였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혁명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간 혁명은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자 하며 선하고 형제 사랑에 충만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유일한 정의 (또한 올바른 관계)와 인간의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하느님만이 세울 수 있고 세우기 원하는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 알퐁스 마이요

마이요는 카를 바르트 급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뛰어난 성서 주석가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마이요는 매우 재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반율법주의적” 저작들을 통해 오경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유일한 “율법”은 사랑이고, 예수가 한 일은 인간의 해방이었다고 주장하는 바울로가 사회 및 정치 제도에 관련되어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자법을 주의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바울로의 주장은, 정치 구조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로는 모든 마니교적인 선악이 원론을 거절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우두머리, 관리들은 그들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건 간에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또한, 바울로는 다음의 본문에서 말한다. “현존하는 권위들은...” 그러므로 마이요에게 있어 그것은 그 시대의 권위들을 뜻한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는 권위들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정의롭다고 믿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권위들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바울로가 강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양심의 동기에 의해서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순종이 맹목적인 것도 체념에 의해서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찰을 없앤다면 절도역시 사라질 것이다.” 사회가 개인을 부패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에는 나역시 동감한다. 예전의 사회는 엄격함과 강요와 억압이 지나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시절 사람들은 폭력 또는 테러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인간의 부패는 더욱 다른 의미에서다. 그것은 인간을 소비로 밀어넣는 광고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도를 시도한다), 고삐 풀린 포르노그래피, 미디어에 노출된 일상화된 폭력에 의한 것이다. 미디어는 범죄의 증거가 맞이 못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사회’ 일 수는 없다.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이 이에 대한 중요한 한 예이다. 마약 소비는 늘어나고 공급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1970 년 무렵 다른 주변 국가들과과는 다른 정책을 채택하려 했다. 마약 거래에 붙는 불법적인 중개인 수수료 루트를 끊고자 (또한, 금단의 열매에 대한 유혹을 없애려고) 마약 사용을 허가하고 의료적 감시를 통해 정부가 처방전과 함께 무료 마약 공급 센터들을 열기로 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마약 거래를 (딜러들은 물론이거니와 터무니 없이 비싼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등의 부작용들도 함께) 끊을 수 있을 것이며 마약에 대한 욕망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은 마약의 수도가 되었으며 암스테르담 중심가는 마약 중독자들의 무시무시한 집결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멈추게 하려고 억압을 멈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와 반대되는 믿음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러한 확신은 ‘죄’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적 개념과 아무 상관 없다. 그러한 확신은 사실 하느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오랜 그리스도 교의 오해는 죄를 하나의 도덕적 잘못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본다면 틀렸다. 죄는 하느님과 그의 단절이며, 그로 인한 결과다. 내가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교적인 관점 또는 도덕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처한 사회 또는 그가 받은 교육이 어떠한 인간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은 탐욕과 권력 추구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으며 항상 존재한다. 만일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부여된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욕심낼 것이다. 이 탐욕은 매우 거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가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다른 것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이다. 지라르 (René Girard)²⁶ 는 이 탐욕의 결과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였다. 서로 힘을 겨루며 경쟁하는 사람들 또는 탐욕에 젖어 같은 것을 놓고 경쟁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도 만들어 낼 수 없다. 결국, 이상적인 아나키즘 사회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 또한, 어차피 모든 것이 오랜 기간에 걸친, 한때 선했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할지라도, ‘과도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닳아 내려져 있

던 경향들이 한 세대 정도의 기간만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틀을 갖추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 선한 목소리로 인도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굳건한 정치를 이끄는, 필요한 권력 기구들이 자리잡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 ‘국가의 소멸’을 바라야 할까? 우리는 지금이 이론을 적용할 시도들을 이미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모든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지복 천년 설을 믿던 사람들 및 “신국神國”을 추구하던 사람들 등의 경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너져 버릴 권력들 및 권위들을 실제로 대체할 자치 제도를 낳는 바닥으로부터의 새로운 제도들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이 생겨나는 것이 내게는 더 올바르고 가능해 보인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880 년에서 1900 년 사이에 있었던 많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anarcho-syndicalistes 을 돌이켜 본다. 그들에게 노동자 기구들, 노동 조합들 그리고 노동자 연금 조합은 부르주아 국가 제도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어야 했다. 그것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가 아니라 주민 주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했으며, 연맹들은 지역적이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를 맺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1914 년 제 1 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을 무렵 한편으로는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을 없애 버리기 위한 정책이 논의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역시전임자들**이 지명되는 그 시점부터 생겨나는 급진적인 돌연변이 일뿐이라는 옹호가 있었다. 거기에서 대안 오류가 있었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 연금 조합들은 완전히 처음의 성격을 잃어버렸고, 프롤레타리아 엘리트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요약하자면, 나는 ‘순수한’ 아나키사회를 믿지 않지만, 새로운 사회 모델 창출 가능성은 믿는다. 유독 오늘날, 이 모든 것은 새롭게 창안되어야 한다. 노동 조합들, 노동자 연금 조합, 분권화, 연맹 시스템, 이 모든 것은 낡았으며 변질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버렸다. 또한, **모든** 정치 형태들 역시 낡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회주의, 선거 시스템, 정치 정당들 역시 독재 정부나 마찬가지로 참을 수 없이 유명 무실하다.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 부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며 구석 구석으로 확산한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 제도들, 정치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민주주의, 나폴레옹의 국가보다 더 광범위하게 힘, 권력, 권위, 사회 통제가 증가하게 하는 정부 시스템을 사람들은 더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기술 덕분이다. 문제는 기술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기술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힘의 원천이 기술 인체제가 문제이며, 기술자들은 영감을 제공하고 잠재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 관료주의, (광고 또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선전물, 개인의 순응, 모든 것을 “생산자-소비자” 관계로 변형시키려는 명백한 의지 등등의 증가를 다시 언급할 필

1920 년 그의 신학적 선언이었던 위대한 『로마서 해석』에서 그는 사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질서가 존재하며 정치 제도들은 이러한 질서의 일부이라고 전제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질서를 전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것이다. “혁명을 반대함.”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도들의 “정당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질서를 찾는 우리는 모든 기존 질서의 불의함을 확인한다. 문제가 되는 기존 질서는 질서의 나쁜 면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향반의 지에 상처를 입히는 사실이다. 모든 권위는 그 조건들 안에서 하나의 독재가 된다. 그럼에도 혁명적인 간은 사실 상 악에 의해 정복당한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 자체로 정의의 대표하고자 하며 즉시 독재로 변해 버림으로써 정당성을 찬탈하기 때문이다! 악은 악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기존 질서에 의해 침해된 정의의 감정은 그것의 파괴로 복구되지 않는다! 혁명가는 그 영혼 안에 “불가능한 가능성” 즉, 진리, 정의... 죄의 용서, 형제적 사랑,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다! 그것은 증오의 가능한 가능성, 복수, 파괴에서 비롯된 혁명이다! 그는 **진정으로 혁명을 꿈꾸었으나 일으킨 것은 다른 것이었다!** 우리의 본문은 기존 질서를 위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지만, 기존 질서의 모든 적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만이 기존 질서의 불의함에 대한 정복자로 확인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권위에 순종함”에 대하여 권고하자면 그것은 순전히 부정적 정의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의 철수이며 참여하지 않는 것, 연관되지 않는 것이다. “혁명에 항상 기존 질서에 대한 (정의로운) 단죄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반란의 행위여서 안된다. 그것이 촉발하는 갈등은 하느님의 질서와 기존 질서 사이의 갈등이다.” 결국, 반란은 항상 기존 질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 하나의 질서를 재구축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회개하라. 하지만 더 이상 반역자가 되지 마라.” “순종하라”는 말은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 **그 자체로**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잊으라는 말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혁명이 진정한 정의를 입증하므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면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환상도 없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 교회, 사회, 긍정적인 정의, 가족, 학문은 끊임없이 현금 및 장엄한 속임수들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인간의 신앙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원문대로 옮김) 이 모든 제도로부터 그 열정을 빼앗으면 그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태도에서 밝혀낸 방향성을 다시 발견한다.) “혁명에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혁명에 대한 가장 나쁜 준비다.” (카를 바르트에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의 나라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리의 본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바르트가 말한 바로는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질서의 기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 진 모든 권위는 하느님에 의해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의 시작이자 그의 마침, 그와 의올 바른 관계이자 그의 정

명을 의심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것에 순종한다. 비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서 오해로 가득 차 이러한 죽음을 그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누가 그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시험이며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고 또한 욕을 시험하여 일으킨 분노이기도 하다. 다만 예수만이 끝까지 순종하였다. (순종하지 않을 완전한 자유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느님을 사랑한 이 때문에 그는 인간들의 힘을 “무력화했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들은 다시는 없으며 독립적인 “엑수시아”도 없다. 이제 그것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종속되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당연히 다시는 반역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정복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것의 의미하는 바는 정치권력 옆에, 또는 그 너머에 생겨던 엑수시아 exousia 가 정복당했으며 그 결과 **정치권력은 결코 이전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항상 상대적일 뿐이며 상대적일 뿐인** 이것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 더는 문젯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그 형식을 얼마나 상대화시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바울로의 구절이 있다. “(사람들이 절대화해 온) 모든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었다!

부록

☒ 카를바르트 (Karl Barth) 와 알폰스마이요 (Alphonse Maillot) 의 로마서 8 장 1~2 절 해석

나는 모든 신학자 및 교회가 이 본문을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로 해석하는 데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두 저자의 각 해석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카를바르트

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솜구치는 증가를 통제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²⁷ 게다가 교회들조차 한때 그들의 사명을 배신했다. 정당들은 한 세기 전의 희곡을 위한 연극 활동에 전념했다. 그리고 내가 아나키즘을 유일하고 진지한 문제 제기이자 행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양심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다. 내가 진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아나키즘이라는 권력의 강화로 변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머지 사회 위에 존재하는 한 권력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 권력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권력에 관계된 것으로, 그 원래의 의미는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의 힘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이미 전술한 것처럼 완전히 그것 (권력의 존재-역자주) 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모임을 조직할 수 있으며, 또한 고발할 수 있다. (우리가 고발할 것은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다!) 그리고 오직 아나키즘만이 마르크스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아나키즘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상으로 필요한 것은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이전의 세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방임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텔레비전에 길들여져 있으며 정치적인 열이나 정치적인 삶을 완전히 조롱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꾸로 그들은 관료주의 및 번잡한 행정 절차의 틀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발하라. 그러면 당신은 대중의 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시 말한다면, 국가와 관료주의 사회의 권력이 증가할수록, 개인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방어로서 아나키즘의 필요성은 더 증가한다. 아나키즘은 그날 카로움과 용기를 다시 찾아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나키즘이다.

2. 그리스도교에 대한 아나키즘의 불만들

여기서는 19 세기 그리스도교에 대한 아나키즘의 공격들을 되짚어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덮으려는 시도 없이 나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그리스도교 Christianisme”(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isme’로서의 그리스도교) 또는 그리스도교 세계 Chrétienté 그리고 그리스도신앙 및 성서적 근거 사이에서 오랜 설명을 시도해 왔던 이의 제기를 상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²⁸ 나는 여러분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공격을 구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그리스도교와 형이상학적 질서에 따른 그리스도교.

첫번째근본적인증명은, 모든종교는어떤종교이든중심주제는 **진리**인만큼전쟁과갈등의근원이며, 종교에서비롯된‘전쟁’은순수하게정치적이거나군주의자의에의해서일어난것들보다결국훨씬더심각하다는것이다. 반대자는악과거짓이육화肉化된존재이므로완전히제거되어야한다. 항상그래왔다. 전통적인종교에서뿐만아니라그것을대체해온국가종교, 공산주의종교, 돈을숭배하는종교, 등등의새로운종교에서도예외는아니다. 종교신앙의이름으로자행되어온모든전쟁은한때로마의전쟁이그랬던것처럼‘속죄없는전쟁’이다. 그러나악을말소해버릴것처럼끔찍했던전쟁들에서조차도그홀린피로인해악이말소되지않았다. 우리의전쟁은어떤예외도동정도없이적을짓이겨야하기때문에속죄없는전쟁인것이아니다. 이러한전쟁은성서에서도발견되는데, 유대민중의적에대한전멸의의미하는 **헤렘 Hérem** 이선포되었으며, 이는여자, 아이그리고가축들까지죽여야함을뜻했다. 물론이헤렘에대한본문들은성서를진지하게받아들이는신자들에게는아주강력한근거다! 또한, 이슬람이이끄는전쟁이있는데그원칙은다음과같다. 세상에서태어나는모든아이는그태어난사실만으로무슬림이다. 그가무슬림이기를거부한다면그것은부모의책임이며그사회의책임이다. 모든무슬림의의무는타인을진정한신앙으로이끌고오는것이다. 그리고반대로이슬람지역(oumma: 공동체)의범위는전세계이다. 어떤것도이신앙에서벗어날수없다. 그러므로이세상은거룩한전쟁 djihad 의원칙에따라정복되어야한다. 이는내가주장하는것이아니라자명한사실이며, 내가상관할문제도아니다. 그럼에도, 이슬람은열성신자들을가진어떤다른종교들보다확신에찬견해가있으므로무제한으로죽이고또죽일준비가되어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전쟁들이있다. 이것은그기원들로부터비롯된것이아니라카롤링거왕조와함께시작된것이다. 로마 (콘스탄티누스이후) 의그리스도교황제들이수행한전쟁들은어떠한종교적인성격도가지고있지않다. 그것은 4 세기전부터수행되어온전쟁들과같은성격을가진것으로, 제국의국경을방어하려는것이였다. 제국의거대한해체및메로빙거왕조시대이후종교전쟁 (8 세기) 의개념이생겨난다. 그리고이그리스도교의거룩한전쟁들이한세기전일어난이슬람의모방이라는가정을나는감히하고자한다. 전쟁은그리스도교세계에서정복전쟁의수단이되었으며이교도를그리스도인이되도록강제하고자함이였다. 그정점은“외방의주교”로봉헌된샤를마뉴 (Charlemagne) 였으며잘알려진것처럼작센인들을향한그의모험에서그특징이잘드러난다. 작센일부를점령한샤를마뉴는작센사람들을십자가앞에세운다. 그리스도인이될것인가아니면죽을것인가. 알려진바로는 6 천의작센사람들이그렇게학살되

마지막으로, 슬프게도 3 세기이후의교회들및그리스도교세계는이본문들을오해하였고, 그렇기에나는삼십여년전에이루어진한연구⁵⁸를상기하지않은채이본문들에대하고찰을끝낼수없을것같다. 이연구에서사용된단어는헬라어“엑수시아이 exousiai”로사실상권위들의의미한다. 그리고그것은공적인권력전체를지칭하는단어다. 그러나신약성서에서이단어는하나의다른의미로사용되었다. 엑수시아이 exousiai 는추상적, 영적종교적성격을가진“힘들”을지칭한다. 바울로는하늘에서군림하는이“엑수시아이”에맞서투쟁할필요가없다고말한다. 예를들어천사들이바로엑수시아이라고생각할수있다. 쿨만 (Cullmann)⁵⁹ 과덴 (D. Dehn) 은다음과같이생각했다. “같은단어를사용하는만큼거기에는어떤연관성이존재한다!”이는다시말해서신약성서의본문들은땅의정치적군사적권위들이 — 그것들은악하고악마적일수있는만큼“하늘의”권위들이라고부를수없다 — 영적인힘들과의관련성안에서세워졌다고생각하게끔한다는것이다. 이영적인엑수시아이의존재는정치권력들의보편성을설명해주었으며또한놀랍게도사람들은그것들을당연히존재하는것으로알고순종한다! 그리고그것을다스리는자들에게영감을주는영적인권위들이다. 그런데이권위들은선하거나악하고, “천사같거나악마적”이다. 땅의권위들은누군가의손에떨어진존재다.(땅의권위들은영적인권위들로부터권력을위임받은존재다-역자주) 그러므로『로마인들에게보낸편지』의구절들에서바울로가다음과같이쓸수있다고이해할것이다. “**지금**존재하는권위들은하느님의해세워진것입니다.”그리고그반대로모든개신교신학자들은 1933 년부터히틀러의국가를“악마화된”, 어떤악마적인힘의손에떨어진국가라고서술했다.

내가상기하는바첫세대그리스도인들의태도는완전히단일한것만은아니었다. 국가를파괴하고자했던거대한사조의옆에모호한하나의사조가존재했다. (그러나무조건국가에순종하고자했던사조는 **결코**아니었다!) 나에게가장중요한것은다음이다. 바울로는『골로사이인들에게보낸편지』 2 장 13~15 절에서악과죽음에대한예수의승리에대하여다음과같이말한다. “그리고십자가로권세와세력의천신들을사로잡아그무장을해제시키고그들을구경거리로삼아끌고개선의행진을하셨습니다.”그것은근본적이다. 우리가알다시피무죄한자를십자가에못박은것은권위들의악을폭로한다. 바울로는여기서한발더나아간다! 그리스도사상에있어그리스도의십자가죽음은모든힘 — 하늘에서든지옥에서든 (내가말하고자하는것은그들의존재여부가아니라그시대의확신에대한것이다) — 에대한그의진정한승리다. 왜냐하면, 오직그만이완전히하느님의뜻에순종하였으며 **오해 scandale 에연루되어**정죄와죽임까지받아들였기때문이다. (예수는자신이당하는일을전혀이해하지못한다. 나의하느님, 어찌하여나를버리시나이까?) 그는자신의이해와자신의사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쟁점이다. 첫 번째 쟁점은 전혀 어렵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룬 것으로 세금의 납부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금을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전부다.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권위들을 위한 기도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로의 본문은 “왕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고하는데, (왕이 아니라 왕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와 같은 식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의 권위, 하나의 정부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본문은 앞서 설명하였던 것을 더 확실히 해준다.

바울로는 사실 상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왕들을 위해 그리고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어떤 특정한 경우이며, 정말로 그렇다! 왕을 위해서조차 그리고 관리들을 위해서조차 그렇게 하라니 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사랑의 부름에서 비롯된 전구(傳求, 중보·편집자주)로부터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히틀러에 맞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깊숙이 참여하며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기까지 하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알고 있다!⁵⁶ 우리는 정적을 절대적으로 죽이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가 확실히 테데움 Te Deum⁵⁷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권력이 번영하라거나 승리하라거나 보전되라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키도록”(그말의 뜻은 행동을 바꾼다는 것), 폭력과 폭정을 그만두도록, 그리고 진실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도 그에 맞서서도 아니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그것은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만큼! (그것은 확실히 다음과 같은 관계 없다. “황제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을지라도 드려져야 한다! 권위들에 대한 존중 및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말한 이 본문들은 거의 확실히 네로의 첫 그리스도교 박해의 시기 또는 그 이후에 쓰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로가 말했던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여러분은 이 박해들을 당하고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권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무기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지고한 정의를 행하시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오래 계속된 십자군 전쟁, 알비파와 카타리파²⁹에 대한 그리스도교 세계 내부의 종교 전쟁,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 간의 16~17 세기에 있었던 ‘종교 전쟁들’과 같은 끔찍한 전쟁들이었다.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전쟁들과 ‘식민주의’ 전쟁들이 있기까지 진리 또는 종교는 변명, 구실,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당화 예외가 지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종교가 살짝 녹아든 전쟁이다.

그러나 나의 의의 제기는 다음의 것이다. 전쟁을 거룩한 의무로 만드는 종교 또는 (몇몇 인디언 또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서 시행되는) 의식의 시험과 모든 폭력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단죄하고 제거하는 ‘종교’ 사이에는 심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중심이 되는 메시지, 즉 진리의 말씀과 전쟁 행위는 사실 상 동일한 개념이다. 후자의 경우, ‘종교적’ 계시와 전쟁 행위는 모순된다. 권위들, 지성인들 또는 전쟁의 예로 드는 겁탈 구어인 여론이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의무는 이에 맞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 영적 메시지인지 상기하고 전쟁을 부르는 거짓말에 대해 급진적으로 논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자는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성인들과 군중에 맞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중심 메시지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인 ‘종교’가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와 반대되는 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전쟁을 인도할 수 있는 지 이해할 길이 없다. 나는 물론 어떤 논리들이 이 정당화에 동원되는 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좀 더 나중에 다룰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계시가 한 종교의 탄생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전쟁의 전달자일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며, 종교야말로 그것에 대한 거대한 배신이다.³⁰ 그럼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다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두 가지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진리**와 **구원**의 문제다. 전술한 것과 같이 종교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종교가 배타적인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리스도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교적 진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심이 되는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진리요...” 그러므로 나중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게 된 바와는 달리, 진리는 도그마의 총합도 아니며 공의회나 교황의 결정도, 교리도 아니며, 책으로서의 성서조차도 아니다.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인격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속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신을 주는 질문이다. 그리스도교 진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에 의해서만 붙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 성서 본문이 그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그렇다.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믿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전쟁 등등의 해부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면서 사실상을 것들을 미리 믿지 않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그것은 진리를 행함에 관계된 것이다. (어떤 사상의 체계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수를 따라라” 또는 “예수를 닮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 역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어렵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 진동을 확인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다가도 (예를 들어 진리를 강요하는 것 등) 금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세웠던 것이다. (단순한 복음 말씀들조차 완전치 못하여 버린 채로!)

두 번째 문제는 구원의 문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잘 알려진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후에 이것을 ‘정죄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성서가 말하는 바는 아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맞다. 하지만 그들이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위적으로 신앙을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사를 마누의 정복에서 시작해 페루의 정복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강제는 위협에서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대한 정당화는 (종교 재판에서 처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다. 이 ‘영원한 지복’을 위해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무슨 말인가? 게다가 이러한 사형 집행에는 “오토다페 (autodafé, 신앙 행위)³¹”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바울로의 편지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에서조차 그러한 예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신앙은 자유로운 행위로서 생겨나야 하며 강요에 의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에게 아버지라 불린 하느님이 강제에 의한 신앙을 원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성서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결국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세계를 비판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역사적으로 실행된 폭력적인 정치 행위, 강제 그리고 전쟁을 고발할 완전하고도 충분한 이유를 지녔음은 명백하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두 번째 비판은 이웃 사촌으로 국가와의 결탁에 관한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이래로 (그리고 약 20 년 후 그는 결국 회심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의 회심이 진지한 것이었는지 회의적이며 그것이 순수하게 정치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본다) 국가는 ‘그리스도교적’³² 국가가 된

적 권위들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로마 12:3~8), 원수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의 손으로 절대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로마 12:9~13)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로마 12:14~21) 이 발견된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리고는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본문이 시작된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또한 다음과 같다.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며,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라.” (로마 13:8~10) 그리고 14 장은 마치는 장으로 각종 행동을 예로 들면서 사랑의 “실천”을 자세히 설명한다. (손님 접대, 심판하지 말 것, 약한 자를 도움 등)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범주이며 이 범주 안에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본문이 자리한다. 날카로우나 이상한 몇몇 주해들은 이 본문이 사실상 “가필”이며 바울로가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확실히 그가 쓴 것이 맞다! “...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식의 문구는 친구, 이방인, 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되며 바로 이 자리에 권위들에 대한 단락도 자리한다! 다시 말해, 너는 네 원수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여야 한다. 물론 또한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까지 하여야 한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령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권력들은 하느님에 의해 그 권력에까지 이른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렇다! 악하고 광기 어린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상기하자. 그 역시 하느님에 의해 권력에도 달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선택되고 의롭고 사랑스러웠음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 구절에 대하여 뛰어난 주석가들 중 하나였던 마이요 (A. Maillot) 는 그 구절을 12 장의 마지막에 직접 갖다 붙인다.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위의 권위들에 순복하십시오.” 이는 다시 말해 바울로가 국가, 황제 권력, 권위들에 적대적이었던 초기의 그리스도교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바울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권위에 대한 교회의 적의를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로는 교회에게 말한다. “권위들 역시 사람이며 [추상적인 국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자들은 그 자체로 권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로의 충고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가 “내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내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공물을 내야 한다면 공물을, 두려워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명예로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돌려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세금에 대한 예수의 대답에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해석은 명백하다. 여러분이 빚진 것은 두려움도 권위들 및 관리들에 대한 명예도 아니다! 두려워 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느님 뿐이다. 명예를 돌려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느님 뿐이다. 나는 이 장의 마지막에 부록을 하나 붙였는데, 거기에는 이 본문에 대한 두 개의 주해가 있으며 그것들은 관참은 주해들 중에서도 가장 나은 것들이다.

이었다. (바로우리가하려는것이그것이다.) 그들은오직한가지만붙들었다. “모든권력은하느님에게서온것이다.”이는앞으로열여섯세기동안교회와국가가협력하는데있어중심사상이된다. “모든권력은하느님에게서온다 (Omnis Potestas a Deo).”때때로대담한신학자들은“민중의해 per populum”라는표현을덧붙였으나그것은그명령법에붙은사족일뿐이었다. 모든권력이하느님에게서온이상하느님에게하듯권력에순종하여야한다. 그리고폭군과관련된, 때때로난처함에빠진상당수의신학자는우리에게기이함마저느끼게한다. 권력을행사하는사람이합법적이고정당하고평화롭기만하다면또한도덕적이고합리적이기만하다면그의권력은하느님으로부터온것이라고설명하는궤변에빠졌던것이다. 그러나이모든것은단순한일반명령은결코될수없다. 종교개혁의시기에조차. 농민전쟁에서부터는이본문을근거로독일의영주들에게반란을진압하라고권고하였다. 특히칼뱅은왕이교회를공격할경우를제외하고는항상정당하다고주장한다. 권위가그리스도인들이자유롭게예배를드릴수있도록내버려둔다면더말할나위가없다. 그러므로그것은초기그리스도인들의생각에대한믿을수없는배신이며이배신은곧순응주의적경향및순종의편리함에서비롯된것이라고나는말하겠다. 그것이무엇이든이방대한본문들로부터사람들이붙들어온유일한규칙은“모든권력은하느님에게서온다 (Omnis potestas a Deo)”라고하는내개의단어뿐이다! 우리는바울로의이본문들을돌보기를좀더가까이대고들여다볼것이다.

첫번째할일은 **다른모든성서본문과마찬가지로** (그리고모든다른본문들과마찬가지로!) 하나의설명전체로부터일부의구절들을골라내기를거절하는것, 또한이구절들이어떠한컨텍스트에서비롯되었는지생각해보는것이다. 그러므로이전체에대해살펴보자. 바울로가로마인들에게보낸편지의첫대단원은유대인들과그리스도인의관계에대한긴연구로 11 장에서끝난다. 12, 13, 14 장은새로운주제로시작한다. (그가운데우리의본문이있다.) 그리고이긴본문은다음의말로시작한다. “여러분은이세상을본받지말고마음을새롭게하여새사람이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로의본질적인일반명령은순응주의자가되지말며**시류나유행또는그리스도인들이사는사회의사조에순종하여‘시류’를따르지말고‘변화’되라는것이며, 여러분의마음을새롭게함으로써‘새로운존재’가되라는것이다. (하느님의뜻과사랑에서비롯된전혀새로운관점에서사고하라!) 그것은다음의명령바로뒤를이은또다른명령임이분명하다. “정치

다. 교회는그로인한편리함을얻게되지만, (국가는사람들을강제하여‘그리스도교인’이되도록교회를도울것이며, 교회에크게도움이될보조금을쏟아부을것이고, 예배장소를보장해줄것이며, 성직자들에게특권적지위를수여하는등의혜택을줄것이다.) 그럴수록교회는제국의위치가신학에녹아들수있도록도울것이며 (!) 교회가아닌국가가‘참된교리’를결정하는일이찾아질것이고 (!) 국가가공의회를소집하고주교임명을감독하는등의일이벌어질것이다. 교회는국가를떠받들어야할것이다.

왕좌와 제단의동맹은왕정복고³³ 시대에나일어난일이아니라이미 5 세기에일어났다. 이두영역을분리시키려는시도가있기는했다. 하나는현세적이며다른하나는영적인이두영역의융합은끊임없이반복적으로시도되었고나와다른책에서앞서말한것처럼교황은내방의주교요황제는외방의주교였다. 테데움 Te deum 을비롯한대관식기도문들은교회와정치권력을섞어야하며민중에게권력을공인해주어야하는교회의개념을잘표현했다. 파렴치하기짝이없었던나폴레옹은다음과같이말했다. “민중은사제에게복종하고사제는주교에게, 그리고주교는나에게복종한다.”교회가결정적으로국가를홍보해주는대리인이었고지금도그렇다는것을이보다더잘표현한선언은없었을것이다. 왕은하느님의해임명되었으므로 (이러한입장에대한반대가많았음에도) 왕에게불복종하는것은하느님께불복종하는것이였다. 이는일반화될수없다. 다시말하지만, 이것이공식교리이자교위성직자및교회지도자들의교리 (정교회및루터교회의교리이기도하다) 일지라도‘근본적으로’일반성직자및하위성직자에게는그렇지않다! 내전공이기도한 14~15 세기에는농민폭동의대부분에있어일반사제들은교구민들과함께했으며그들반란의지도자인경우도있었던것이다! 그러나그것은결국대량학살로이어지는것이일반적이였다. 민주주의로이행한이후에도달라진것이있는가? 우리가상상하는것만큼은아니다. “권력은하느님에게서온다”는생각은민주주의국가로이행한이후에도변하지않았다. 이상하게도이는아주오래된양식이다. 9 세기이래로몇몇신학자들은다음과같이말하고는했다. “모든권력은민중을거쳐하느님에게서온다 (Omnis potestas a Deo per populum).”그러나이것이민주주의에직접해당하는말이아님은분명하다. ‘그리스도교적’민주주의에서역시이러한동맹은큰차이가없으며교회로서는더손해가되는동맹이다. 세속민주주의에서신학적으로는완전한분리가존재하지만, 확실히그렇지는않다. 교회는이러한신학적인입장에대하여불확실한태도를보인다. 교회는왕아래에서는친군주적이요, 나폴레옹아래서는친황제적이었으며, 공화주의자들앞에서는친공화주의가 (이경우로마가톨릭에서는갈등과주저가있었지만, 프로테스탄트교회들은적극적이였다) 되었다.

더심한경우공산주의국가에서교회는친공산주의화되었다. 그렇다! 헝가리에서그리고체코슬로바키아에서개혁교회들은호르마드카

(Josef Hromádka) 및 베렉츠키 (Bereczki) 와 손잡고 공개적으로 친 공산주의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 1941 년의 전쟁 (제 2 차 세계 대전-역자주) 시스탈린은 정교회의 지원을 요구했고 (예를 들어 전쟁 때 돈 빌려간 사람들의 채권을 예치하는 식으로!) 교회는 매우 즐거이 그에게 봉사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교회는 체제의 훌륭한 수호자가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스스로 채권을 발행했고,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히틀러 체제 하에서 직접적은 아니었지만 그를 지원했다. 또한, 교황은 히틀러와 협정을 맺기까지 했다. 이 모든 예시는 정치 권력의 형태가 어떠하든 교회 권력 및 지도층이 국가의 옆에 붙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산주의 쪽에서 니카라과 Nicaragua 같은 라틴 아메리카 체제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로마 가톨릭 교회 및 '해방' 신학자들 덕분에 자리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에 반하는 유일한 예는 잘 알려진 대 폴란드의 경우이다.

교회들은 국가 형태에 적응하는 동시에 그 이데올로기도 흡수한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보편적인 그리스도교 세계에 대해 주장하는데... 그것은 한때 제국 (신성 로마 제국-역자주) 이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뻗어 있었기 (또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 세계가 민족 국가들로 나뉘게 되면서 교회역시 민족 국가의 교회들로 나뉘어졌다! 하나의 좋은 예시가 바로 잔 다르크의 경우다.³⁴ 그리고 16 세기 이래로 전쟁은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이 되었고 교회는 각국의 교회로 나뉘어 각국을 지원했다!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별 것 아니었지만 "Gott mit uns"³⁵ 라는 이상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커다란 스캔들이었다. 사람들이 성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나머지 두 국민은 각 전쟁 중에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며 자신들이 구약의 '선민'이거나 『요한의 묵시록』에 나오는 비유적인 전쟁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한다. (정적政敵은 사탄이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인 또는 교회들로부터 생겨나는 폭력의 이러한 양상들에 이단 박멸 및 종교 재판 을 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배타적으로 수호하려는 교회가 스스로 절대 무오無誤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물론 종교 재판 기구는 엄밀히 말하자면 13 세기 (1229 년) 초에 만들어져 이단 (알비파와 카타리파) 과, 14 세기 무렵에는 마법³⁶ 과 싸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형 판결, 화형은 극히 드물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한 예외가 카타리파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서 남부 (바욤느 Bayonne, 툴루즈 Toulouse, 보르도 Bordeaux) 의 보존된 종교 재판 기록들을 연구하도록 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은 고작 일년에 평균 6~7 건의 유죄 판결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종교 재판은 여론을 통제하는 장치

음의 본문들을 인용하려고 한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우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느님께서 세우 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룰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벌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로마 13:1~7)

그리고 『디오에게 보낸 편지』 3 장 1 절,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이것들은 성서 전체를 통하여 순종을 강조하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들이다. 이 두 본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주된 사조와 대비되는 어떤 ‘역사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둘째 편지』 2 장 10 절,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가 거기 있다. 그리고 『유다의 편지』에는 역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러나 이 본문들의 성격은 모호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권위는 하느님에게 속한다고 줄기차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 장 1~2 절은 말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로의, 또는 바울로에 영감을 받은 본문들의 목음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방금 다룬 모든 것에 대한 역사조로 보인다.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것이다. (또는 슬프게도 너무나 이해 가능하다.) 3 세기부터 제기된 문제를 쉽게 잊어버리고는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부분의 신학자는 바울로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 장을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의미로 설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구절들의 컨텍스트 (상황-편집자주) 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차살펴보지 않은 것

정점에도달했으며더이상은자랄수없어결국쇠퇴하기시작하리라생각했다! 그것은베르길리우스또는티투스리비우스가증언하는것처럼영광과열정의시대이후의철학자들과작가들에게서나타나는생각이었으며그렇기에이시대를어두운비관주의시기라고부른다. (잘알려지지않은작가들역시당연히그랬다.)

그러나거기에다음의생각이덧붙여졌다. 대제국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이붕괴할때마다그것을대체할새제국이나타난다. 당시로마가멸망시키지못한유일한적수는새영토를정복하며끊임없이권력을확장하고있던파르티아였다. 그리고지성인들및‘지도층’인사들로이루어진한정당이나타나매우진지하게파르티아제국으로마를대체하리라예측하였다. 그들중에는그것이“역사를주관하는신의뜻”이라고생각하며그러한생각을전파하고경우에따라파르티아를지지할수도있는하나의정당을세우고자하던사람들까지있었다! 그런데파르티아인들은사실상 **왕**의지배를받고있었다. 어떤사람들이생각하는바로는‘왕’을위한기도들에서왕의의미하는것은바로파르티아의왕이며, 당시그것은금지된것이였다! 그것이금지된것이아니었다할지라도 (물론어떤역사가들은이러한생각에이의의를제기한다.) 우리의『베드로의첫책편지』본문은전혀다른의미를내포하고있다. 그것은왕이라는이름으로황제를칭하며그를기리거나로마의왕을위해기도하라는뜻이아니다! 두번에걸쳐왕을언급하면서베드로는어째서파르티아의왕이라고적시하지않았던것일까? 그어떤경우에도이본문은완전히반역적이다.

그러나그는어떤다른권력을지지했던만큼그것은당시로마의정치권력만을겨냥한것이였으며국가자체를겨냥하여말한것은아니였다. 그럼에도, 이본문은수동적이거나복종적인것과는거리가멀었던당시그리스도인들의일반적인정치적태도에속하는것으로다음의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 정치적무관심이아닌, 정치권력의정당성을인정하기를거부하거나경멸하는태도

☑ 일반적으로정치권력을부정하는태도

☑ 로마권력을단죄하는태도

로마군이예루살렘을점령하고성전을파괴하며유대정부의자율성을말살하고이유대전쟁중에대학살을자행했을뿐만아니라예루살렘그리스도교를제거한기원후 70 년이후정치권력에대한그리스도인들의적대감이로마로집중되었음은자명하다!

5. 바울로

결국우리는바울로의본문들에도달한다! 그러나당시그리스도인들의일반적인상황을우선살펴보아야한다. 나는잘알려졌든그렇지않든다

이자다른한편으로는 (그익명성및재판절차의비밀성때문에) 그존재자체로충분한, 집단적인공포를조장하는기구였다. 이것은정치권력의손에들어가면서그성격이완전히바뀌었다! 종교재판정은몇몇왕조들에의해‘집어삼켜’졌다. 그러므로 16 세기이래로종교재판은무서운기구가되였다. 포르투갈, 스페인그리고베네치아공국에서종교재판은완전히정치권력의수중에있었다. 그것은그때부터공포를조장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실제로“정치-종교적”인이유로사람들을죽음으로몰고가는기구가되였다. 그리고카타리파의경우는이미종교적이면서도정치적인문제였었다. 카타리파는아이를가질필요가없다고가르쳤고, 이때문에몇몇왕들은그들왕국의인구가줄어들것을염려했다...

이러한설명들끝에무엇이있든지아나키스트들이이러한그리스도교와교회행위들에문제를제기할충분한이유가있으며, 이는사실종교의이름으로존재했던, 용납될수없는형태의권력이었음을나는다시말할것이다. 그러나이들 (교회와정치권력-역자주) 은혼동되어왔고, 아나키스트들은이러한상황속에서종교를거부할이유를가졌던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논의에더하여민중을착취해서얻은교회및고위성직자들의부유함, 그리고 19 세기교회와자본주의권력의제후에대해서는더강조할필요조차없을것이다. 우리모두는끔찍하게변용되어버린예수의말씀을알고있다. “가난한사람들은복이있다...” 또한마르크스는민중의아편을고발할이유가있었다. 왜냐하면이시대교회에의해설교된그리스도교는정말로민중의아편이였기때문이다!

나는다음의두가지를덧붙이면서말을마치고자한다. 우선교회들이더는권력을가지고있지못하는시점으로부터, 정치권력과교회들이더는연결되어있지않은시점으로부터, 그리고교회에등록된신자들의수가급감하는시점으로부터상황은분명히밝아지고개선되리라는것이다. 이해관계또는두려움때문에교회에머물렀던사람들은이미떠났다! 두번째로, 그리스도교및교회들에대한아나키스트들의전술한것과같은비난은 (그리고그외마르크스주의자, 자유주의사상가들등으로부터의비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사실상성서메시지와복음을더잘이해해야하고그들자신과교회의행동을바꾸어야하며성서를더욱잘이해해야한다는요구로받아들여져야한다.

* * *

역사적, 윤리적이고찰을마치면서우리는일반적으로는종교에대해, 특정하게는그리스도교에대해공격하는아나키스트들의형이상학적배경을알아볼필요가있다. 사실여기에는네가지결정적인이의제기가있다.

그리고 우선 알아보아야 할 것은 “신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슬로건이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적으로 어떠한 **주인**도 원하지 않는 아나키스트들은 종교적인 주인으로서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주라 불리는 권력들이 섬기는 하느님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람은 하느님에 의해만 들어졌다고 하는 생각 속에...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은 하느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인이며 아무 것도 아닌 인간 앞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세상의 주인들과 하느님을 동시에 거부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그들은 20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그 호칭들의 시대착오적인 성격을 계속 주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창조 의왕이며 예수는 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더는 왕도 없으며 주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수의 생각이며 하느님에 대한 **종교적인** 이미지이고 결국 하느님이 왕이자 주라는 성서 텍스트의 언급 역시 수없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성서가 우리에게 완전하다른 이미지의 하느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감히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여기서 이다른 이미지를 살펴보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것이다. 성서의 하느님이 전능하시리라 도 그는 그와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의 전능함을 사실감추시는 하느님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모두가 아는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바벨탑,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는 능력이시며 그것은 자의 또는 번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배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넘어서 사랑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의 모습일 뿐 아니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히브리 성서에도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다. 이 사랑의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그저 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을 무섭게 폭발시킴으로써가 아닌, 단지 말씀 하나만으로 창조하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권능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말씀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시며, 이는 그가 처음부터 “소통하시는 하느님”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폭력적인 힘으로 투쟁하는 신들 (올림포스 산의 신들을 포함하여) 을 담은 종교적인 우주관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성서의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 두 번째 이야기에 따르면 — 인간의 성격을 형성한 것 역시 말씀이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첫 역할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만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말이다.) 이 다른 이미지를 가진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묘사는 광야의 엘리야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엘리야가 고독 속에서 비탄에 잠긴 지 사십 일 만에 무서운 불, 바람, 지진이 일어났고 성서 본문에 따르면 그때마다 하느님은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지진

상 그것은 당시의 정치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다. 첫 번째로 결코 제 1 시민 princeps (성서가 기록된 시대 전체를 통틀어 사람들을 황제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항상 제 1 시민이었으며 그래서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제 1 시민의 시대 principat 라고 불린다) 은 바실레우스 basileus, 즉 황제라는 칭호를 가진 적이 없다. 그것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칭호였다! 카이사르의 암살은 그러한 고발에 따른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는 군주정을 세우려고 시도하였고, 그것은 소란을 일으켰다. 그 소란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러한 빌미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영리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일련의 **공화주의적** 호칭들을 계승하였고 받아들였다. 그는 집정관, 호민관, 최고 사령관이었다. (임페라토르 imperator⁵⁵ 는 황제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신관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마민주정의 전통적인 칭호였다! 그는 심지어 내전의 결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직무 조차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영구 집정관제” 및 독재관이라는 칭호의 폐지가 그것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자신을 제 1 시민, 즉 첫 번째 시민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오직 인민이 주권자이며 인민이 그 자신의 “집정관”을 제 1 시민으로 임명한다. 이 임명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는 민주적 투표를 통하여 원로원에 충분한 권력을 부여하게 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법률적으로는 별 내용이 없는 모호한 직함을 받는다. 조국의 아버지, 시민의 수호자 servator civium, 그러나 그는 또한 “제 1 의원”이기도 했다. 그것은 원로원의 첫 번째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체제 내에서 공화주의 제도를 세웠다. 그의 계승자들은 그만큼 세심하지 않았고 결국 조급식 제국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황제라는 칭호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한 칭호를 수여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기자는 그 서신에서 로마의 황제를 겨냥하여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자, 여기서 나는 매우 아슬아슬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가정이다. 로마에는 정당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1세기 무렵에는 지배적인 하나의 철학을 기초로 한 단일한 하나의 정당이 발전한다. 이 철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제국들은 하나의 순환하는 생명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정치적 힘이 태어나서 자라고 전성기에 도달하며, 그 순간부터 더는 자라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쇠퇴하게 된다. 그것은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바대로 세상의 모든 제국의 운명이 그러하다면 로마도 그러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1세기 로마의 작가들은 스페인에서 페르시아, 스코틀랜드에서 사하라 그리고 남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던 로마가 힘의

그후에따르는것은로마에물건을사고판모든자의긴목록이지만그중가장흥미를끄는것은그목록의가장아래에나타난다. 대바빌론은“사람의몸과목숨”을사고팔았다. 그것이단지몸뿐이었다면그것은노예매매로생각하면그뿐이다. 그러나거기에는다음의단어가등장한다. 목숨.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노예의매매가아니다. 그것은정치권력이인간위에군림하는권력임을뜻한다. 그리고약속된것은이정치적지배의순수하고단순한멸망이다. 의심의여지없이로마뿐아니라모든권력과모든지배권은특히하느님의원수로묘사된다. 하느님은 **큰탕녀**로불리는이정치적힘을심판한다. 사람들은그것으로부터어떠한정의도어떠한진리도어떠한선도기대할수없으며단지그것의파괴만을기대할수있을뿐이다. 알다시피우리가기대하는것은로마의식민지배에저항하는예수의반란이아니다. 다시말해, 그것은그리스도인들의수가증가함에따라그리고그리스도교사상이진화함에따라정치권력에맞서강해져왔다. 이본문을단지로마에국한하기를원하는것은환원주의적사고일뿐이다. 그들이강해진것은박해가시작되면서부터였으며, 큰탕녀는“성도들의피와예수때문에순교한사람들의피에취해”있었던만큼그리고“큰도시에서발견된것은예언자들, 성도들그리고 **땅에서목이잘린모든사람**”이었던만큼이본문은그에대하여말하고자했던것이다. (그러므로그것은초기그리스도인들뿐아니라모든의로운사람들이당한학살과관련되어있다.) 놀랍게도이본문은그렇게그리스도인이라는이름으로죽임을당한사람들이목이잘리는형을받았다고말한다.(목시록 20:4) 때문에그것은여전히서커스놀이의문제도사자에게던져지는등의문제도아니다. 그렇게권력은그리스도인들뿐만아니라모든“의로운”사람들도죽인다. 이러한경험이정치권력을비난하는확신을더욱공고하게만들었음은분명하다. 초기세대의그리스도인들은전체적으로불때어떠한다른입장도가지고있지않았다고나는믿는다. 당시그리스도교는완전히국가에적대적이었다.

4. 한영향: 베드로의편지

바울로의본문으로향하기에앞서, 후기서신중하나인 『베드로의첫째편지』의짧은구절하나(베드로 1 2:13~17)를살펴보고넘어가자. “황제는주권자이니그에게복종하고… 황제를존경하십시오….”이본문이주석자들에게조금의어려움도주지않았던것은놀랄만한일이다! 그들에게그것은정말로단순한본문이었다! 그들에게황제는로마황제를의미하는것이었으니까당연하다. 그러므로이본문은그리스도인들에게정치적권위들에순종하고복종하라고가르치는매우드문본문중하나다. 예를들어, 성서의관련구절들에서예수의다음말씀을이본문에연결하는것은나의관심을끈다. “카이사르의것은카이사르에게돌려주어라!”그러나사실

속에도계시지않았다. 마침내한작은소리 [슈라키 (Chourraqui)]³⁷는“벽력같은고요”라고번역했다] 가있었으며, 엘리야는무릎을꿇고겉옷으로얼굴을가렸는데이는하느님께서그소리가운데계셨기때문이다. 그리고얼마나많은예언서의텍스트에서하느님께서그비탄에빠진백성에게위협하기보다는오히려속삭이시며말씀하셨는지우리는확인하게된다.(내백성이여, 너를나에게돌아서게하려고내가무엇을하였더나?)

또한이하느님이권능가운데자신을나타내셨을때조차도한위대한신학자가말한것처럼“하느님의인간적인모습”은숨겨지지않았던것이다. 예를들어, 시나이산이야기는다음과같다. 그산은천둥, 번개등으로뒤덮여있고, 백성은두려움에떨다. 그럼에도모세가산위에오르자출애굽기사는다음과같이말한다. “야훼께서는마치친구끼리말을주고받듯이얼굴을마주대시고모세와말씀을나누셨다.”하느님의권능이무엇이건첫번째로지나가는것은전능하신주하느님의모습이아니다. 하느님의모습은인간의수준으로낮아지신“자기를제한하시는”모습이다. 절대왕정에영향을받은신학자들은(16~17 세기로마가톨릭신학자들) 하느님을모방하여왕들의전능함에대해주장했지만그들은정확히틀렸다. 그럼에도전능한국가앞에서(또그에맞서) 하느님은그보다훨씬더전능하시며모든왕의왕이라는사실을상기시키는것은때때로유용하다. (모세가파라오앞에서그랬던것처럼.) “네가하느님인지는너를죽이러오는자객앞에서알게될것이다”각설하고, 성서의하느님의참된얼굴을사랑이다. 아나키스트들은“사랑도없고주인도없다!”라는식의말에까지동의하지는않을것이다.

그리스도교에반대하는아나키스트들의하느님개념에대한두번째비판은아주유명한두딜레마중하나다. 하느님이전지전능하시며“섭리”의하느님이라면인간의자유는어디있는가하는것이다. 여기서우리는그리스철학과고전신학자들로부터비롯된하느님의이미지가대단히광범위하게퍼져있음을알게된다. 우리는사람들이그리스사상으로부터‘속성’의총합을그리스도교의하느님에게‘부여했음’을알고있다. 무소부재한, 전지전능한, 무감정한, 불변의, 영원한등. 나는성서의직접적인언급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예를들어영원함의의미하는것처럼영원하신하느님) 성서의이해로부터가아니라인간의논리에서비롯한하느님을대표하는이미지에이의를제기하는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어떤결정적인단언을빠짐없이진술하는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하느님을인지할수없으며그가누구인지상상할수도분석할수도없다. 진지했던신

학자들만이 부정·반대의 신학이라 불리는 것을 실천했는데 이는 “우리는 하느님을 인지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단지 그가 무엇이 아닌지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돈은 신도 나무도 또는 샘도 태양도 아니다.” 우리는 긍정의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정의는 성서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긍정의 선언이나 사랑은 어떤 주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의 자기 정의 (自己定義, 출애굽기 3, 14) 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하지만 히브리 단어들의 다중 함의를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나는 **존재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존재할 나다”, “나는 존재할 나일 것이다” 등등.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든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카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지할 수 없는 자**로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에게 부여한 모든 속성은 상상 혹은 인간이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사신死神 신학자들이 “신을 죽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그 이미지를 파괴한 것은 커다란 공로였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19 세기 위대한 아나키스트들과 니체의 공격은 그들 시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신학자라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과학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또한 그리스도교 철학자였던 리코어 (Paul Ricœur) 는 “임시변통의 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신의 뜻이라 말한다는 뜻) 을 끊임없이 고발하였다. 그것이 설명하기 편한 임시변통이든 세상의 기원 등에 대한 이해하기 편리한 가정이든 사실상 하느님에 대한 오류들은 계속 이어져 왔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성서적이며 아주 단순한 하느님의 진실, 즉 ‘하느님’은 **아무 쓸데 없다**는 명제에도 달하게 된다!³⁸

그렇다면 이 ‘하느님’을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가? 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리하고 “쓸데가 있는” 것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공리주의 및 근대성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을 이용해 온 아주 무거운 죄질의 오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개념 — “섭리의 하느님” — 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오직 어떤 힘에 의한 것이기이 한 창조 — 그리스도교적이라 할 수 없다 — 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명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성서에 이러한 섭리의 하느님은 없으며, 그러한 축복, 그러한 저주, 그러한 부유, 그러한 행복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하느님은 없다!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하는 거대한 컴퓨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서적인 개념이 아니다. 세상에는 그 자신이 시작하신 발걸음에 인간을 동행시키시고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 하느님은 때때로 개입하실 수 있지만, 결코 어떤 법률에 따라서나 독재적인 자의에 의하지 않는다! 섭리의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면, 하느님의 선물로서 어떤 행복이, 하

가?” 짐승에게는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땅의 모든 거주자가 그를 숭배한다. 권위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숭배를 요구하는 정치 권력을 묘사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과 “디아볼로스”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 묵시록의 마지막에는 그 짐승이 바로 국가임을 확증해주는 본문이 등장한다. 큰 바빌론 (로마) 이 멸망하는 것이다. (제 18 장) 그리고는 전투가 일어나는데 짐승은 하느님과 전쟁을 치르고자 땅의 모든 왕을 모으지만 패퇴하고 단죄를 받는다. 그것이 대표하는 것의 운명 역시 그러하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나의 해석은 전문가들에게는 좀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대로 믿고 나가자 한다. 이 짐승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는 땅의 모든 거주자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 “그는 땅의 거주자들을 속인다.” “그는 그들에게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는 짐승의 이미지에 생기를 주어 그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는 작은 자든 큰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민이든 노예이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경찰**과 연관된 **선전**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사실 사람들을 국가에 복종하고 국가를 숭배하도록 이끄는 논쟁을 주도하며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하는 “표”를 준다!

결국, 첫 번째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 묘사가 정확하다고 믿는다. 로마의 주요한 선전 수단 중 하나가 제단 및 선전 등을 통해 로마 및 황제에 배를 세우는 것이었음과 그 시대 유다의 왕들이 완벽하게 그에 복종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본문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 말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오리엔트 지역의 지방 세력들은 로마에 배를 발전시키는 데가 장열 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성 또는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한 종류로 첫 번째 짐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을 쓴 유대인들에게 국가 및 그 선전은 **악**에서 오는 두 힘이 있음을 상기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마지막 본문은 유명한 18 장으로 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이 본문이 로마를 겨냥한 것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로마는 명백히 최고 정치 권력과 동일시된다. 모든 민족은 그녀의 광적인 악덕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악에 의한 광기와 폭력의 첫 번째 묘사는 흥미롭다.) 땅 위의 모든 왕은 그녀와 간음을 한다. (땅의 왕들은 그녀와 잤으므로 정치 적 힘의 꼭대기에도 달한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된다. (그주해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부를 구체화하는 수단이며 그 고객들을 부유하게 한다. 오늘날 무기를 만드는 “거대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임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정치 권력과 금권의 결합이다.) 그녀가 무너질 때 “땅의 모든 왕은 슬퍼하며 절망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흐느낄 것이다....”

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여 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빌라도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정한다. “아무튼 네가 왕이냐?” (그것은 그에게 예수를 유죄 판결할 정당 근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그에게 대답한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질문을 한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자 예수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숨겨진 조롱, 도전,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발이다. 예수는 그러니까 아예 이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빌라도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및 종교 권위에 맞선 예수와 관련된 본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비협조’, 무관심 때로는 고발의 반어법과 경멸을 발견한다! 그는 게릴라가 아닌, ‘본질적인’ 반체제 인사였다!

3. 『요한의 묵시록』

그러므로 처음 두 세대가 권력에 대해 가졌던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규정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요한의 묵시록』⁵⁴은 가장 폭력적인 책으로, 예수의 말씀들과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으나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다! (기원후 100 년에서 130 년 사이 에 기록됨) 그것이 직접적으로 로마를 겨냥한 본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대에서의 로마인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책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의 권능에 맞서는 땅의 모든 권능 및 권력들이 등장한다. (하느님의 권능과 땅의 권력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거나 유일하신 전능자 하느님이 마치 땅의 군주처럼 하늘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오류는 그만큼 땅에서 전능한 왕을 그려 낸다는 것이다. 『요한의 묵시록』이 말하는 바는 정확히 그 반대다!)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내가 붙잡는 것은 단지 두 개의 거대한 이미지다. 첫 번째는 “두 짐승”으로 로마 마지막 예언자들 (구약 성서 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예를 들면 다니엘-역자주)의 이미지에서 온 것이며, 사실상 그들 시대의 정치 권력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바다를 통해 군대를 보내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는 용에게서 받은 “왕좌”에 앉아 있다. (제 12~13 장) (용은 반역 하느님 Anti-Dieu 을 대표한다.) 그는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했다.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한다. 그들은 선언한다.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

하느님의 경고 또는 처벌로서의 어떤 불행이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느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것이 축복인지 처벌인지 객관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관적 일 수밖에 없다. 신앙 안에서 어떤이에게 하는 말처럼 나 역시 단어들의 의미 이상을 들을 수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

이 모든 것은 착각일까? 이러한 생각을 단지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 년기의 경험은 그 반대를 입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온 거짓된 하느님의 이미지들을 쫓아 내기를 계속하자. 섭리의 하느님은 대중을 위해 세워진 개념이었다. 지성인에게 있어 하느님은 (인과론적 사고에 의하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일 것이다. 물론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만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본질적 이유를 하나 대자면, 모든 원인들의 원인으로서의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시스템에 속하였지만, 성서가 말하는 하느님은 변하시고 흐르고 고자의적 인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는 자유로운 하느님이시며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그는 무엇보다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굳이 모든 원인들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설명에도 달한다. 창세기는 6 일간의 창조를 묘사한다. (물론 24 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6 일째 되는 날, 그의 창조를 끝마친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그리고 7 일째 되는 날, 그는 쉬셨다. 그러나 모든 인간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가능한 대답은 하나다. 이 일곱 번째 ‘날’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느님은 그의 휴식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그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조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조직하고 기능하는 그 자신의 법칙들을 가진다. 인간은 그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께 ‘불순종’하리라는 사실은 (다시 말해 그에게서 분리된 리라는 것은) 이상황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행동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그의 휴식에서 나오시지 않는다.... 세상의 구성은 그대로 남는다. 하느님은 그의 휴식에 머무르신다. 인간은 그 자신의 의방향을 정립하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나 전술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를 계속하시며 또한 그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다리신다. 그는 말씀이시며, 당신의 피조물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때로 그것을 위해 하느님은 그의 휴식에서 나오신다. 성서 본문들은 분명하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의 휴식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결국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요한의 묵시록』에서 위대한 약속 및 기쁨은 바로 이 휴식을 되찾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의 휴식을 되찾으실 것이며 인간은 (죽음을 뜻하는 “휴식”과는 아무 관계 없는) 하느님의 휴식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때때로하느님은그자신의휴식에서나오신다... 상황이인간에게절망적 일때하느님께서는구원의계획을시도하시지만, 항상성공적인것은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거기참여해야하는것이실패하기때문이다! 여기에는수많은예시가있다. 이경우에역시하느님은그의휴식에서나오시는데, 그것은인간이서로에게향한악이하느님의인내의한계를넘어서게되고결국그가개입하시게끔하기때문이며, (하지만전술한것처럼갑작스럽게말만하기적에의해서가아니다!) 이것을통해서하느님은악한자들이 처벌받을수있는일시적인질서를구축하신다. (그러나이역시비밀스럽게하느님으로부터힘을받은사람에의해서그렇게하신다.) 하느님에대한전통적인이미지에익숙해있는사람이더이해하기어려운것은인간의역사와하느님의‘역사’가뒤섞여있는것이다. 그리고우리는다음의중심되는생각에도달하게된다. 성서의하느님은무엇보다도우주적인사령관이 아니라해방자이다.³⁹

사람들이일반적으로모르는것은창세기가성서의첫번째책이아니라는사실이다! 보다이전에유대인들에의해첫번째책으로, 기초가되는책으로여겨졌던책은출애굽기였고, 다시말해, 유대인들은그들의하느님을우주의창조자이기 이전에그들의 **해방자**로인식하였던것이다. 또한다음의텍스트는의미심장하다. “나는너희를노예로삼은이집트땅에서너희를해방했다.”그런데이집트는미츄라임 (“이집트”의히브리어-역자주) 이라고불렸고그뜻은정확하게다음과같다. “이중의곤란.”그리고랍비들은다음과같이이단어를해석했다. “삶의곤란과죽음의곤란.”성서의하느님은무엇보다도모든노예생활로부터그리고삶과죽음의곤란으로부터인간을해방하는하느님이다. 그리고사실그가‘개입’하실때마다그것은인간에게자유와마당을만들어주시기위함이었다. 때때로그것은비싼값을치러야했다. 그리고그것은항상하느님이사명을맡기신어떤사람을통해이루어지는일이다. [매우자주어떤사람은고난을겪고거절당하는등을경험하는데이러한하느님의교육과정에대한이야기는아주많다. 알퐁스마이요 (Alphonse Maillot)⁴⁰는이성서의하느님이어떤점에서그렇게유머가출중하신분인지잘보여준다!]

그러나왜자유 (해방-역자주) 인가? 우리가하느님은사랑이라고받아들이는다면, 그리고인간은이사랑의응답자라고한다면설명은간단하다! 사랑은의무도아니고강요할수도명령할수도없다... 사랑은당연히자유로운것이다. 그리고하느님이자유롭게하신다면그것은그가가다리시며, 인간이그에게응답하고그를사랑하기를희망하시기때문이다! 당연히하느님은인간으로하여금당신을사랑하도록위험하지않는다! 여기에는두개의반론이뒤따른다. 하느님은유대백성에게십계명을비롯한수백가지계명을내리신분이라는것인데, 그런데도그가사람에게강요하지않는하느님인가하는것이다. 거기에대하여내가할수있는말은바로

결국내가제기하는 (거의지지받지못하는) 해석은, 예수는빌라도에게다음과같이말하였다는것이다. “나에대한너의권력은악의영으로부터온것이다.”그것은우선우리가다루어온“유혹들”이라는주제와들어맞는다. (세상모든왕국의권력은악마에속한것이다.) 그다음으로, 조금전에다루었던구절에관하여, 예수는대제사장들에게이재판은암흑에속한일이라고대답한다. 결국그대답의후반부는설명한다. 예수는빌라도에게말한다. “너는악의영으로부터너의권력을받았으나나를너에게넘겨주는자는너보다더죄가크다!”참으로그렇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재판에서예수의태도에대한구전및정확한그의말씀들을담은) 이본문들이초기그리스도인들의일반적인견해를형성했다고인정한다면어찌하여빌라도가악의영덕분에권력을가졌다고더분명하게말하지않았던것일까? 왜본문은이처럼모호하게기록되었을까? 물론나는본문이그것으로충분하다고생각한다! 이복음 (『요한의복음서』-역자주) 은그리스도인들이범죄자로여겨지기시작하던시기에쓰였으며그렇기에어떤본문들은그의미가분명하게드러나지않도록“숨겨졌음”을우리는잊어서는안된다!

결국예수는때때로도발을서슴지않는다. 예를들어대제사장은그에게묻는다. “너는메시아인가, 하느님의아들인가?”우리는예수가다음과같이대답한다는것을알고있다. “그것은네말이다.”그러나그는덧붙인다. “이제부터사람의아들이전능하신분의오른편에앉아있는것과또하늘의구름을타고오는것을볼것이다!”⁵³ 그것은그시대의모든신학자가그침에대한조롱이었다. 예수는자신이그리스도라고말하지도않았으며, 그자신이하느님의오른편에앉을것이라고말하지도않았다. 그는“내가”라고말하지않았다. 그는말했다. “사람의아들이”라고. 그러나성서에정통하지않은사람들을위해, 예수는결코자신을그리스도 (메시아) 라고도, 하느님의아들이라고도말한적이없음을언급해야겠다. 예수는항상자신을“사람의아들”(다시말해, 참사람!) 이라고지칭했다. 그가다음처럼말했을때이미대제사장을조롱한것이었다. “이제부터...”그러므로내가나에게유죄판결을내리는그때로부터! (『마르코의복음서』에도이와관련된같은대답이등장한다. 그러므로이는사실상예수가한말로서여러기회를통하여첫세대의그리스도인들에게전해졌던것이다.)

결국『요한의복음서』에등장한것은그와같은도발로서빌라도를향한것이다. (요한 18:34~38) 늘그렇듯예수는이본문에서빌라도를어리둥절하게만든다. “네가유대인의왕인가?”예수는대답한다. “그것은네말이냐? 아니면나에관해서다른사람이들려준말을듣고하는말이냐?”빌라도는자신이유대인이아니라잘모르겠으나유대의권위자들이예수를넘겨주어그러한질문을하는것이라고대답한다. 그런데예수는다음의모호한대답을한다. “내왕국은이세상것이아니다.”(그러므로나는제국과경쟁할생각이없다!) “일내왕국이이세상것이라면내부하들이싸워서나

로들이다. “대제사장들이 많은 죄목으로 그를 고발했다.” 그리고 빌라도는 간청한다.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나 예수는 사실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빌라도를 더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그것은 모든 종교 및 정치의 권위를 거절하고 업신여긴 태도였다. 예수는 이 권위들이 어차피 정의롭지 않으므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는 때로 공격적이며 멸시 또는 조소하는 태도를 보인다.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되풀이하자면, 그들은 예수에게 묻는다.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 그리고 세 이야기 중 둘은 다음의 아이러니한 대답을 보고 한다. “그것은 네 말이다.” (나는 그 주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의 태도 역시 대제사장들 같은 권위에 대한 하나의 고발이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잡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루가 22:52~53)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집짓 대제사장들을 악한 권위라고 고발한다. 거의 같은 상황이 『요한의 복음서』에도 나타난다. (요한 18:20~21) 대답은 다르지만, 반은 조소하며 반은 고발하는 내용이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는 대답한다. “나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묻거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군병 중 하나가 그 불손한 대답에 격분하여 뺨을 때리자 예수는 그에게 대답한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입증하여 보아라. 그리고 내가 제대로 말하였다면 어찌 나를 때리느냐?”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위의 부정에 아직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요한의 복음서』의 본문이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말한다. “너는 나와 말하기를 거절하는구나. 내가 너를 살려 보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 모르느냐?”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대답한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조금의 권력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 준 자들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다.” 이유 명한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구절은 확실히 다양하게 해석된다. 모든 정치 권력이 하느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신한다. 예수는 빌라도가 하느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 대답 후 반부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 주목한다! 예수를 넘겨 받은 권력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왜 그를 넘겨 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인가! 두 번째 해석은 순수하게 역사적인 것이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말한다. “너의 권력은 바로 황제가 준 것이다...” 나는 이 해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예수가 빌라도는 황제에게 속할 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들의 대화와 이 해석이 가지는 관련성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법 조항에 상응하는 이 ‘계명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들이 이 의무와 강요들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계명들은 하느님이 삶과 죽음 사이에 경계지우신 한 계다. “네가 살인하지 않는다면 살인당하지 않을 가장 큰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인한다면 네가 그것으로 인해 죽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사적인 살인이든 전쟁이든 다를 것은 없다!) 칼로 살인하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다. 이는 그 모든 계명으로 보아 참이다. “네가 그 안에 머문다면 너는 보호 받는다. 네가 그것을 어긴다면 위험과 죽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선과 생명, 악과 죽음을 놓는다. 너는 살려면 선을 택하라. (나는 너에게 권고하여 선을 선택하도록 돕기까지 하는 하느님이다.)” 이 계명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면은 그것이 명령이면서도 또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너는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은 다음의 뜻을 내포한다. 살인하면 안 되며 거기에 더하여 “네가 살인함이 불가능해질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이 해방의 행동은 그리스도 교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취다. 이 자유에 대해 가장 힘 있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로이며, 이 주제에 대해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는 다음과 같이 자유에 대해 말했다. “너희가 해방된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마라.”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나 모든 것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결국, 야고보는 ‘하느님의 법’을 자유의 법이라고 부른다! 음식 및 생활 방식 등에 관련된 ‘규정’들을 거절한 바울로의 놀라운 이야기 — 바울로는 지혜롭게 보이는 이 규정들이 하느님의 명령들이 아니며, 단순히 인간의 계율일 뿐이라고 말한다! — 를 비롯하여 우리가 성서의 수많은 본문을 읽을 때 교회들이 얼마나 자주 인간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도덕률에 종속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해방되었고 그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그럼에도 하느님은 행동하신다! 그것이 개입이든 명령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다. 이것은 다음처럼 이해된다. 이 논점에 대한 첫 번째의 견은 그것이 항상 한 인간에게 전달된 계명들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법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러한 일반화의 권리가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어떤 가르침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을 팔아야 한다는 일반화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부에 대한 경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또한, 그리스도인 각각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신

의방식대로 행동할 자유와 책임을 지니며, 하느님 또한 그 상황에서 행동하신다. 이 두 행동은 서로 결합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인간은 완전히 수동적일 수는 없고, 하느님 역시 모든 것을 홀로 하시지는 않는다. 그는 권고하시고 명하시지만, 인간이 그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매우 놀랍다!) 하느님은 사람이 그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승인하실 수도 있다. (다음 용기의 놀라운 구절을 보라. “하느님께서 잘못하실지라도 나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서의 하느님이 대화할 수 없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기능하는 어떤 기계나 거대한 컴퓨터가 아니며, 인간 역시 만드신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는 뜻이다.

* * *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최근의 (내생각에는) 커다란 의의 제기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것은 아주 유명한 딜레마다. 하느님이 전능하신데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 일이어날지라도!) 또는 하느님이 선할지라도 전능하지는 않은 것은 악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내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대답을 쉽게 해줄 것이라 본다. 우선 분명히 밝혀둘 것은, 악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 사탄, 악마 등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및 헬라 문화권의 대표적인 신화이며 인물에 대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다! 유명한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전설일 뿐 성서에 따른 어떤 것이 아니다.

디아볼로스 diabolos 는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분열을 책동하는 모든 것이 ‘악마’다. (이것의 반대는 사랑이다!) 사탄은 모함하는 자이므로 인간이 서로 모함하는 것을 책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을 비롯한 그와 비슷한 존재들이다. 인간이 타인에 대해 또한 자신에 대해 악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악은 인간에게서 비롯하며, 인간은 이웃에게, 또한 자연 등등에 악을 행한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의 힘이다. (악마는 잘못된 지성인의 질문들 및 세상을 허무로 이끄는 큰 뱀인 권력 같은 것을 대표한다.) 성서에 의하면 그것은 오직 인간으로부터 비롯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느님은 끊임없이 개입해 그를 해방하시고,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은 그가 결정한 것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하

를 제기하고자 한다. 엄밀히 말해, 로마의 군대는 대군이었던 적이 없다. 그들은 많아야 120 군단 정도였으며 제국의 국경선 전체에 걸쳐 배치되어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대를 내부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제국의 질서는 군사적 질서가 아니었으며, 오백년간 제국이 보유했던 질서는 정교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얻어진 안정 및 행정의 숨겨져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수의 재판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랑스러워했고 가장 정의로운 해법을 제공했던 그 법은 결국 누구에게 적용되었는가? 그 어떤 정당한 동기도 없이 무죄한 사람을 군중이 재판하게 하고 사형 선고로 받게 했을 때 말이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 뛰어난 사법 체계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이었는가! 그러므로 예수가 재판에 순종했다는 사실은 결코 정부 권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정의에 이르고자 하던 것의 근본적인 불의함을 폭로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공감하게 되는 것은 다음 선언에 이르러서다. “예수의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권력은 불의하다는 성서 기자의 이러한 확신과 마주친다. 우리는 거기서 전도자의 메아리를 재발견한다.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악이 다스린다.”⁵²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의 예수의 말씀과 태도를 관찰하자. 물론 네복음서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있으며, 말씀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산헤드린이라고도 하고 헤로데라고도 하고 가야파라고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의 태도다. 그것은 침묵, 권위자들에게 의한 고발 또는 결연한 도발로 표현되었다. 예수는 이 권위자들 앞에서 대화를 시도하지도, 결백을 주장하지도, 어떤 권력의 참됨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바로 충격적이다. 나는 이제 면면의 예수의 태도를 다시 다뤄려고 한다.

침묵, 대제사장 등 모든 산헤드린 앞에서: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이 그가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마태오) 증언하였다는 사실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권위자들은 놀랐으며 그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킬 뿐이다. 헤로데 왕 앞에서 도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루가만 전하는 사건이다) 헤로데는 그와 말해보고 싶어 그를 호출한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결국 그곳은 예수에 대해 적의가 없는 상태였던 빌라도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던 자리였던 만큼 『마태오의 복음서』와 『마르코의 복음서』는 로마 관리 빌라도 앞에서 다시 한번 놀랍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예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역설한다. 예수를 빌라도 앞에 고발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

잡혀갈때그가다른말로돌아가보자. 베드로는그주인을방어하고자병사중하나에해를가했다. 예수는그에게멈추라고말하고나서폭력에대한절대적인심판을의미하는이유명한말을한다. 그것은또다른폭력을날을뿐이며, 칼은풀무로부터또다른칼이나오게한다. 또한, 중요한것은같은의미의구절이『요한의묵시록』데도등장한다는것이다.(묵시록⁵⁰ 그것은“땅으로부터올라오는짐승”의출현과관련되어있기에중요하다.(또한새롭다) 땅으로부터올라오는짐승은일반적인정치권력과다양한형태의힘을대표하며“바다로부터올라오는짐승”은우리가선전 Propagande이라고부를수있는것을뜻한다고나는밝힌바있다.⁵¹ 그러므로전자는폭력에의지하며모든것을지배하고어떠한‘인간의권리’도존중하지않는국가다! 그리고본문의기자는폭력적인국가의면전에서선언한다. “칼로죽이는자는칼에의해죽임을당할것이다.”왜냐하면한편으로그것은하나의희망의말씀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국가가칼을사용하는이상, 칼에의해멸망할수밖에없다.(그리고이것이사실임을우리는지난수세기의역사를통해확인한다!) 그러나또한그것은그리스도인들에대한명령이기도하다. 우리가국가와싸우려고칼을들필요가없는이유는, 그렇게한다면칼로죽을자들이바로우리가기때문이다. 그렇게우리는다시금비폭력의의미에대하여안대받는다.

마지막으로, 예수의생애에서우리가주목할마지막쟁점은바로 **재판**이다. 예수는두번의재판을받는데, 산헤드린앞에서그리고빌라도앞에서다. 그런데예수의태도에대한자세한묘사에앞서미리물을것이있다. 카를바르트를비롯한신학자대부분은, 예수가빌라도의재판정에서는것을받아들였으며권위를존중하는것처럼행동했고판결에불복하지않았던만큼, 그것은그가이재판을정당하게받아들였음을입증하며결국그것이바로국가의기초가아니냐고말한다. 내가이러한해석에아연실색하지않을수없는것은나는이구절을정확히반대로읽었기때문이다! 빌라도는로마의권위를대표하여로마법을적용한다. 그런데내가알기로는어떤문명도그렇게정교하고구체적이며재판과토론과변론에서그렇게정의로운해법을제시하는법체계를가지고있었던적이없다. 농담이아니라정말그렇다. 나는스무해동안로마법에대하여가르쳤으며, “무엇이정의인지”말한법학자들의모든숨씨와정교함을발견하였다. 그들은법을다음과같이정의했다. “Jus est ars boni et aequi”, 법은선과형평의예술이다! 그리고구체적으로사실상‘정의’가적용되었음을보여주는결정및책임자등이있음을나는보증할수있다. 우선로마인들은흔히묘사하는것처럼잔인한전사나정복자가아닌, 로마법이라고하는결작이만들어낸창조물들이었다. 그리고나는사람들이전혀생각하지못하는작은문제하나

느님이선을바라시지만, 그것을행하지않는인간을내버려두시는것은전능하신하느님이자동으로인간에게‘선을행하게’만드신다면인간의인생은아무의미도없는것이되기때문이다. 인간은하느님손안에있는로봇이나하느님이가지고노시는장난감이되고말것이다.(하지만왜?) 그렇다면인간은아무것에도책임을질필요가없으므로그가선을행하든악을행하든중요하지않게된다! 의심의여지없이‘일들’은완전무결하게기능할것이며, 전쟁도살인도독재도그외의것들도이러한컴퓨터사이에서는일어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자연재해는? 대홍수들은? 불가지不可知의인간에게이러한일들이반아들이기어렵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여기성서의설명이었다. 모든피조세계가전체로서만들어진이상, 그모든구성요소가긴밀하게연결된한, (오늘날첨단의물리학자들일수록이러한사실을인정한다!) 이피조세계안에서인간이피조물들의‘왕좌’에있으면서피조세계에대한책임을지는한, (앞서말한대로인간이하느님을“피조세계의사랑이라고까지높이는”한) 인간이하느님으로부터자신을분리하는순간부터모든피조세계는인간과함께하느님으로부터분리된다. 이피조세계의주요한부분이자물적으로자신의의지에따라행하기로했기에아무것도있는그대로남아있는것이없다. 모든것이충분히나빠진것이다. 그때로부터피조세계는우주와물질들을구성하는법칙에따르게되고, 그몸을유지보존하면서무로돌아가지는않지만, 인생처럼애로와사고를피할수없게된다. 그리고인간이존재자체이신분에게서분리되었으므로피조세계는다른존재가될수없다.

다른한편, 최근의견해는홍수같은재해들은인간을위한것또는인간과관계된것이아니라는것이다! 눈사태, 지진, 홍수등은그자체로는불행도아니고자연에특정한피해를주는것도아니다! 다른관점에서보자면이것들은우리가발견한물리학과화학의‘법칙들’에따라설명되는것들이다. 인간이거기에있고자연의변화그결과를겪는다면그것이끔찍하다고하겠지만, 그것은인간에관계될때에만대홍수니하는이름으로불릴뿐이다. 그러나사실상하느님은항상개입하시는분은아니라는것을우리는이미이야기했다. 하느님은하느님에게서스스로떨어져나간인간이거기있다고해서자연의법칙을맘대로변경하시지는않으신다! 그가변경하시는것은매우예외적인경우이며인간들은그것을‘기적’이라고부르지만, 기적의 **물질적인**현상은성서의관점에서보면그다지중요한것이아니고다만인간이거기있다는 **의미**에서그렇다는것이다. 특히그것이하느님과 의관계가회복되는것, 하느님께서그를보호하시는것과치료하시는것등을선포하신다는표시라는의미일때그렇다.

하지만 **어쨌거나**기적은경이가아니라지극히드물고예외적인사건일뿐이다. 그러므로나는어린예수의기적들(예수께서흙을빚어새를만드시고숨을불어넣으시니날아갔다는것), 후에전승된예수의기적이야기

⁵⁰ 마찬가지로나는이미성서와꾸란사이에약간의인명人名및전설을제외하고는어떤 유사점도없다고말한바있다.

들, 그리고 그가 군중을 “놀라게” 하셨다는 이야기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거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리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하셨다.) 또한 성서가 하느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정녀 또는 천사 등의) 유명한 발현 이야기들을 완전히 거절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 나를 독자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되었거나 신화적인 근거가 아닌 이성을 통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한 것일 뿐이다! 1947년부터 197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I.E.P.⁴¹에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⁴²에 대해 가르치던 때, 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했다. “나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입장에서서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반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려고 할 때 감정에 의해서, 모호한 이상에 의해서 또는 중용의 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하고자 한다!

제 2 장 아나키즘의 근거로서의 성서

그러므로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국가 또는 권력을 옹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나키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는 안-아르케 an-arkhé, 즉 권력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아나키즘으로서 흔히 가지는 오해인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질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말 아나키 상태로군.” 그리고 이는 서구인들이 사회의 질서가 경찰, 군대, 선전 도구 등을 가진 강한 중앙 권력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이 권력에 대해 말할 때는 무질서라는 주제 역시 함께 도마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에 이은 무질서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농민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설교를 들은 뒤 행동했으며! 곧바로 그것을 표명하기를 원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즉시 영주들에게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칼뱅은 폭정 조차도 사회의 무질서보다 낫다고 말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프로테스탄트인 만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성서에 충실한 선생들이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 조차도

가한 기적은 항상 ‘경이’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 그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구하고자 ‘예외적인’ 기적들을 행한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등) 그러나 결코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거나 그의 힘을 입증하려거나 그의 신성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원할 때 그는 항상 거절한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예수는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한다. (그리고 이는 믿음이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유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그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예수는 이러한 세금은 내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두드라크마’의 세금은 ‘성전세’였으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일 지언정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헤로데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던 이 세금은 왕에게 흘러나갈 유용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말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 종교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은 문제를 큰 시험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 (또는, 예수는 이 세금을 거두는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벌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여기 기적의 정확한 의미가 있다. 세금을 거두도록 명하는 권력은 조롱거리이며 이 권력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 기 위해 그는 부조리한 기적을 행한다. 이 기적은 예수가 왕 및 성전의 권위자들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아무 물고 기나 잡으면 그 입 안에 있는 은화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 태도로부터 그가 정치 및 종교 권력을 평가절하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고 단지 조롱하면 된다고 말하려 함을 확인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자신에 대해 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을 길들인 예수의 행동 양식이었다.

예수의 네 번째 말쑥은 정치 권력보다는 폭력에 더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유명한 말쑥이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마태오 26:52) 하지만 이 본문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루가의 복음서』의 놀라운 말쑥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중 두 명은 칼을 가졌고,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놀라운 말쑥은 본문의 끝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그는 악인들 중의 하나로 물렸다.” 하신 말쑥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칼이 전투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 된다. 두 개의 칼이 예수를 강도 또는 산적 두목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가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쑥은 허튼 소리다. 예수가

은백성을압제한다. 압제하지않는정치권력은있을수없다! 예수의눈에 그것은자명하며확실한것이다. 다시말해우두머리들및위대하다는자들이있다면정치권력은선할수없다는것이다! 그것은또다른“권력”에대한 문제제기이며 (부패한권력등) 우리가앞서다룬것처럼전도자가한말의 매아리이기도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 그것은예수가이왕들및위대하다는자들에대항한반란및물리적인투쟁을선포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 그는언제나그렇듯질문자체로되돌아가서질문하는사람들을끌어들인다. “그러나너희는…” 너희는그래서는안된다. 다시말해그렇게왕들과싸우는데마음을쓰지말고그들을무시하라. 그리고너희는이모든것과 전혀상관이없는사람들, 버려진사람들의사회를만들어라. 그사회에는 ‘권력’도, 권위도, 위계질서도필요가없다….⁴⁹ 너희가고칠수없는, 사회가정상으로받아들이는그러한일들말고다른일을하라. 다른기초위에다른사회를만드는것이너희가할일이다. 물론이러한태도는“탈정치화”라는이름으로비난받을수있다. 그리고사실상우리가다룬것처럼그것이야말로예수의전반적인태도다. 그러나그것이“탈사회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는사회에서나가사막으로가라고하지않고그안에남아다른규칙들및다른법들을따르는공동체를세우라고권고한다. 인간이권력현상을바꿀수없다는것은확실하다. 그리고교회가정치영역에들어가‘정치적인일들’을시작하자마자무엇이되었는지생각한다면그말씀이하나의예언이었음을알게된다. 교회는국가와관계를맺으면서, 그리고자신안에서“권위들”을만들어내면서부패했다. 물론정치권력에서벗어나독립적인공동체를세우는것이예수당시에는비교적쉬웠지만, 오늘날은그렇지않다는정당한반론을제기할수있다. 그것은정당한반론이기이지만우리에게다른이들을정복하고힘을행사하는수단으로서의정치로뛰어들라고설득하기에는역부족인반론이다.

세번째쟁점역시세금에관한것인데, 여기놓인질문은앞서다룬쟁점을재생산한다. “그들이가파르나움에이르렀을때두드라크마를거두는사람들이베드로에게물었다. 당신의주인은두드라크마를내지않으십니까? 베드로는넌다고하였다. 그가집으로돌아왔을때예수께서그에게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어떻게생각하느냐? 세상의왕들은조세또는세금을누구한테거두느냐? 그들의아들들로부터냐아니면이방인으로부터냐? 베드로가대답하였다. 당연히이방인으로부터입니다! 예수께서그에게대답하셨다. 그렇다면아들들은내지않아도된다! 하지만그들을시협에들지않게하려고호숫가로가서낚시줄을드리우면물고기가잡힐것이니그입을열어한세겔 (4 드라크마의가치를가진은화) 를발견하면그것을위하여나와너의몫으로내어라!” 물론매우오랫동안사람들이주목하고자한것은그‘기적’이었다. 예수는마치마술사처럼은화를만들어낸다! 그러나정확하게말하자면이기적은전혀중요한일이아니다. 오히려예수

왕이나영주등이분명하게필요하다는생각에가려의식이흐려졌음을말하고자함이다. 그들은그러한편견없이성서를읽을수가없었다. 모든체제아래서국가가개인을짓누르는오늘날, 우리는이러한베혜못 (욥기에등장하는괴물-역자주) 에문제를제기할수있으며성서를다르게읽을수있다. 물론성서에서도우리는‘권위’를정당화하는텍스트들을볼수있다. 그러나내가곧이에대해언급하겠지만, 거기에는아나키즘을지칭하는일반적인사조가있으며권위를뒷받침하는본문들은아주예외적일뿐이다.

1. 히브리성서⁴³

출애굽이후히브리백성은카리스마를가진한명의지도자에의해인도되었고사십년을광야에서유랑하는동안특정한조직을가진적이없었다. (출애굽당시의임시조직을제외하면) 팔레스타인에정착하고그곳을정복하기위해백성은여호수아를군사지도자로선출했지만아주잠깐이었다. 그외는‘히브리백성’이하나의단일한정체성을가진그룹으로형성되었던적이없다는것은확실하다. 그후백성은혈족과지파로나뉘었다. (이미모세에의해대략적인윤곽은그려져있었을것이다.) 각각우두머리를가졌으나아직구체적인권력은형성되지않은것처럼보였던열두‘지파’는중요한결정을내려야했을때하느님께서백성에게주시는신탁을얻고자제사의식및기도를거쳤으며이는백성전체가함께 모여마지막한마디의결정까지함께내리는모임이었다. 여호수아이후지파들은정복을계속하면서자신들의영역경계를형성했다. (왜냐하면대개그들에게약속되었던땅들은… 아직정복되기전이었기때문이다!) 그리고지파들이정착하자충분히흥미를끄는조직이생겨난다. 지파내에는‘영주’같은것은없었고사람들이귀족이라생각할수있었던사람들은소멸하였거나정복되었던것이다. 그러므로이스라엘의하느님은이제부터그분홀로이스라엘의우두머리라고선언하신다.

그러나그땅에‘하느님의대리자’같은것이없었기때문에‘신정정치’는아니었다. 각각의지파에서파견된모임에서정치적인결정들이내려졌다. 하지만, 계속된패전에의해서든기아에의해서든사회의무질서에의해서든우상숭배와이방종교의귀환에의해서든상황이악화되었을때는— 『판관기』 에의하면 — 하느님은어떤특정한권력이없는한남자또는여자를선택하시며그들로하여금전쟁에이기게하시고그백성을다시하느님을경외하도록이끌어들이시며결과적으로위기를해결하신다. 그리고‘판관’⁴⁴ 들은그역할을다하고나서자리에서내려와백성중하나가된다. 그러므로하느님이가문또는부등의배경이전혀없는어떤사람을부르시는이시스템은매우유연한것이다.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이르, 삼손은왕이라기보다는예언자였다. 그들에게는어떤영원한권력도주어지지

않았다. 오직하느님만이최고권력자로여겨져야했다. 또한『판관기』의 끝에는매우의미심장한구절이등장한다. “그때는이스라엘에왕이없어서사람마다제멋대로하던시대였다.”

그리고아비멜렉의이야기를통해우리는이것을확인한다.(『판관기』 9 장) 하느님의어떠한위임도없는상태에서기드온의한아들은이스라엘을구한가문의일원이라는이름으로그아버지의권력을물려받기로했다. 그는형제들을모두암살하고세겔과밀로에주민들을모아놓고스스로왕이라고선언했다! 그러자요담이라는한예언자가즉시그에게맞서일어나사람들에게다음의흥미로운비유를이야기했다. “나무들은왕을골라그들위에앉히려고모였다. 그들은올리브나무를골랐다. 그러나올리브나무는그의기능, 그의역할은좋은기름을만드는것이라며거절했다. 그들은다음으로무화과나무를골랐다. 하지만무화과나무는같은대답을했다. ‘내가나무들위에군림하기위해나의달콤하고뛰어난열매를포기해야하겠습니까?’ 그는거절했다. 그러자나무들은왕을원했다. 그들은포도나무를골랐으나대답은그전의두나무와같았다. 그래서나무들은가시나무에게부탁했고, 그는물론그것을받아들이며선언했다. 앞으로그에게불순종하는나무들은그에의해‘불살라질’것이다!”아비멜렉을고발한예언자요담은도망가야했다. 아비멜렉은 3 년을다스렸다. 그리고자유에익숙해있던이스라엘사람들은그것으로충분하다고여겨반란을일으켰으나아비멜렉은그것을진압하고그들을학살했다…. 그러나반란을진압하고나서어떤탑위에있던한여인이맷돌조각을그에게던지자그는두개골이깨져죽사했다. 그후판관시스템은회복되었다. 하지만진정한왕의권력의역사(다시말해단일한중앙권력)는사무엘의유명한이야기로부터시작된다. 사무엘은당시‘판관’이었다. 그리고이스라엘백성은모여서판관제도는그것으로충분하며 **다른나라들처럼**⁴⁵ 왕을원한다고선언했다. 이는그들이전쟁을치르려면왕이더효율적이라고믿었기때문이다! 사무엘은그것에반대하였고하느님께기도하였다. 그런데이스라엘의하느님은그에게다음과같이“대답하셨다.”“걱정하지마라. 그들이거절한것은사무엘네가아니라바로나하느님이다. 내가그들을해방시킨이후줄곧그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나를버리려고했다! 그러므로백성의요구를들어주되어떤일이일어날지그들에게알려주어라!”⁴⁶

그래서사무엘은이스라엘백성의모임으로돌아와선언하였다. “너희가왕을원한다면왕을가질것이다! 그러나너희는왕이무슨일을하는지알아야한다. 그는너희아들들을잡아다가군인이되게할것이며너희의딸들을잡아다가하렘에집어넣거나가축을치게할것이고너희에게서세금을거둘것이며너희의가장좋은토지를가져갈것이다…” 그러나백성들은대답하였다. “어떠하든지우리에게는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절대적으로왕을원합니다!” 어쩔수없는일이었다. 그렇게해서왕으로선택된사람이나타났다. 우리가알다시피그는사울이었고후에미쳐버렸으며권력을남용

그러나카이사르에게속한것은무엇인가? 다음의예를통하여예수는**분명하게** 밝힌다. 거기새겨진카이사르의인장은그의권력과한계를나타낸다! 은화뿐만아니라공공건축물, 몇몇황제숭배의제단들… 그것 이전부터! 카이사르에게돌려주어라. 그러므로너희는세금을낼수있다. 어차피그건아무의미도없고중요하지도않으니까. 왜냐하면, 모든은화가카이사르에속한만큼그가단순히물수하기를바란다면그렇게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세금을내거나내지않거나하는것은본질적인문제가 아니다. 또한, 진정으로정치적인문제도될수없다. 그러나카이사르의인장이찍혀있지않은나머지모두는카이사르의소유가아니다! 나머지모두는하느님의것이다.⁴⁸ 진정한이의제기는바로여기서이루어진다. 카이사르는“나머지”에대해서는아무권리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이다. 다시말해생명에대해서우선그러하다. 카이사르는삶과죽음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지 않으며, 인간을전쟁에던져넣을권리를가지고있지않고, 한나라를황폐화하고파괴할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 카이사르의지배권은매우제한되어있으며사람들은하느님의권리의이름으로그가시도하는대부분을반대할수있다. 헤로데가모낸사람들은예수를향해아무이의를제기할수없었기에예수는그들을몰리칠수있었다! 그들은유대인들이었으며또한우리의본문이“바리사이파와헤로데당원몇사람”에대한것이었던만큼그들은경건한유대인이었음이확실하다. 결국그들은예수의이러한확증을부정할수없었다. “나머지모두는하느님의것이다!” 그리고그와동시에그것은이스라엘의해방전쟁을순전히정치적인투쟁으로변형시키기원했던혁명당원들에게그투쟁의한계및본질이무엇인지를상기시킨예수의간접적인대답이었다.

정치적권위들에대한예수의두번째말씀은한놀라운대화에서나타난다. 예루살렘으로올라가는중에제자중몇몇은예수가권력을불잡을것이라믿었고예수가왕권을얻을때누가 2 인자가될것인가를놓고논쟁을벌린다.(마태오 20:20~25) 제베대오의아내는그두아들야고보와요한을데리고와서이렇게요구한다. “주님의나라가서면저의이두아들을하나는주님의오른편에, 하나는왼편에앉게해주시오. (하지만예수는그들을완벽하게잘알고있다!)”예수가제자들에게그가예루살렘에올라가면당연히죽을것임을알라고말한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당시의상황은그러한오해를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예수는우선그들이아무것도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대답하고, 여기우리의시선을끄는다음의문장을덧붙인다. “너희도알다시피세상에서는통치자들이백성을강제로지배하고높은사람들이백성을권력으로내리누른다. 그러나너희는그래서는안된다. 너희사이에서높은사람이되고자하는사람은남을섬기는사람이되어야하고으뜸이되고자하는사람은종이되어야한다…”

그러므로당시사람들에게일반적으로이해되었던견해가무엇이었는데지가여기나타난다. 어떤나라든, 어떤정치체제든나라들의우두머리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 관련된, 특히 주석들이 아마도 진짜 예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본문들도 달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 아닌 —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에 관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나열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쟁점이 있다.

물론 첫 번째 쟁점은 카이사르에 관계된 유명한 이야기다. 간단히 이야기 요약하겠다. (마르코 12:13 으로부터) 예수의 적대자들, 즉 헤로데가 보낸 사람들은 그를 ‘당황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지혜를 칭찬하고 나서 묻는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쳐야 하는지 아닌지 묻습니다. 그에게 세금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는 이미 답이 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그를 “그 자신의 말로” 올라가며 걸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논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가 카이사르에게 적대적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를 로마인들에게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들이 예수에게 온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예수는 언제나 처럼 아이러니한 대답을 통해 거기서 빠져나간다. “내게 동전 한 닢을 다오. 좀 보자.” 그리고 동전을 받고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새겨진 그림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로마의 동전이였다. 그것은 로마 통합의 교묘한 수단이었다. 그들은 제국 전체에 그들의 동전을 유통했고 그리하여 그것은 기축통화가 되었으며 모든 다른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예수에게 확인시킨 것이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계에서 개인의 모습이나 새겨진 물건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었다. 19 세기 서구에서 가축에 소유주의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렇게 말고는 소유 관계를 표시할 수단이 없었고, 다민족 세계였던 로마에서는 소유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인장, 압인, 색칠 등이 사용되었다. 카이사르의 두상을 동전에 새긴 것은 단지 장식 또는 명예의 표시가 아니라 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동전이 카이사르의 것임을 증명하는 표시였다.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 동전의 소지자는 다만 일시적인 소유자일 뿐 동이나 은으로 된 동전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될 수 없었다. (이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두상을 새겨 넣은 이유였다.) 유일한 소유주는 카이사르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대답은 간단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방금 말한 대로 카이사르의 인장이 동전 안에 있으므로 동전은 그에게 속하니 그가 요구한다면 그에게 주어라! 그 순간 예수는 세금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로마에 복종하라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뿐이다!

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커다란 명성을 남겼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후세의 모범이 되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 중 “예외”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베르나드 엘러는 나보다 더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나와 반대로 다윗이 아니라 키즘에 근거를 제공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했다. 우선 『사무엘하』 12:7~9 의 본문에 따르면, 다윗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으며 그의 영광은 그의 “왕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엘러는 다윗이 그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 왕들이 수 세기 동안 계승할 재앙을 촉발시키는 모든 것을 축적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루이 14 세는 18 세기 정치적으로 류들로 이어질 모든 것을 축적했고, 결국 대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로, 성서 본문은 다윗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데에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한 여자의 남편과 그의 정적들을 암살한 것 그리고 그의 치세 내내 이어졌던 내전들 등으로 다윗은 그것들에 대해 결백하지도 않았고 영광스럽지도 않았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치세를 순조롭게 시작한다. 그는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 권력은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퇴색시켜 버린다! 그는 세금을 올려 백성을 쥐어 짜며 궁전을 새로 짓느라 파산할 지경이 되고 7 백명의 궁녀와 3 백명의 후궁을 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곳곳에 성벽을 건축하며, 결국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으며 죽는다. 여러 아들 중 그가 지명한 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자 유대 백성의 원로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백성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펴서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모임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당연히 백성은 반란을 일으켰고 “재정 장관”을 돌로 쳐 죽였다. 백성은 다윗의 왕권을 거절했다. 그리고 지파들은 나뉘었다.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다. 나머지 모든 지파는 연합하여 솔로몬의 옛 신하였던 여로보암 아래로 들어갔다. 내 생각에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룰 가치가 있는 이유는, ‘위대한’ 왕들에게조차 성서의 평가는 냉정하며, 정확히 그들이 당시 국가에 해당하는 군대, 재정, 행정, 중앙 집권 등을 대표하는 한, 그 평가는 더 냉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속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두 쟁점이야말로 있다. 첫 번째 쟁점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성서의 역사 이야기들 전체

를 통해 볼 때 ‘선한 왕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항상 적당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등등을 한 ‘위대한 왕들’은 항상 ‘악하게’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선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에게 정의롭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참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악하다’함은 우상을 섬기며 동시에 하느님을 거절하고 불의하며 사악하다는 뜻이다. 이 ‘두’ 표현은 현대 역사가들이 반군주주의자 및 파르티잔 성향이 있는 저자에 의해 쓰였다고 할 만큼 조직적이다. (『역대기』에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를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은 다음이다. 다스린 사람들은 왕들이지만, 이 본문들은 랍비와 백성의 ‘대표자들’에 의해 윤색되고 출판되고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검열 및 통제는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저작들이 전승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 저작들은 잘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저작이자 국가 왕권의 반대자로 묘사된 이스라엘 하느님의 계시로 여겨졌다. 이 본문들은 기록한 글로 선언되었고 영감을 받은 본문들과 함께 수집되었으며 (당시 ‘정경’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았다) 회당에서 낭독되었고 (마치 아합 왕을 향한 반군주주의 선전 문구가 그랬을 것처럼!) 백성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용되었다. 이것이 기원전 8~4세기 유대 백성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음은 내게 놀라움과 설득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다는 아니었으니 같은 본문 및 모든 예언자의 책은 정치적으로 낮은 선전을 보여준다. 예언자는 각각의 왕들 앞에 선다. 예언자는 대개 (다윗 왕을 포함하여) 왕의 행동에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왕의 정책에 대한 반대로 나타난다. 물론 대체로 예언자들은 쫓겨나고도 망가야 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등등을 받기도 하지만 예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들의 심판은 진리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여기서 반권력적인 그들의 글들은 보존되고 하느님의 계시로 인정되며 백성에게 읽힌다. 어떤 예언자도 왕을 구하려는 사람들이거나 왕의 조언자가 아니며 물론 왕권에 ‘동화된’ 사람도 아니다.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해 말하자면 그들은 ‘반체제 인사’다. 그리고 이 반체제 인사는 민중을 대표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대표한다. 우상을 섬기는 왕일지라도 백성이 여전히 믿는 하느님의 대표자라는 사람을 쉽사리 제거할 수는 없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고발한다. “왕은 잘못하고 계시며 그러한 정책을 펴면 우리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입니다.” 때때로 왕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예언자라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예언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은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항상 ‘참’ 예언자가 승리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역시 낮은 사실을 알게 된다. ‘거짓’ 예언자에게서 오는, 왕에게 호의적인 어떠한 예언도 “거룩한 책들” 가운데 수록되지 못하였지만, 예언자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왕국 및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태오 4:8~9) 또는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 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루가 4:6~7)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아닌 가 하는 것도, 신학적인 어떤 문제를 말하자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와 그들이 표명하고자 했던 개인적인 확신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두 복음은 헬라적 기원을 가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에 따른 유대적인 적의의 감정이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으로 일반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물음이며 “땅의 모든 왕국”의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헤로데의 왕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이 말하는 바는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모든 권력, 힘, 왕국의 영광, 그러므로 정치 권력 및 정치 권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악마’에게 속하며, 이 모든 것이 악마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 그렇게 정치 권력을 붙잡는 사람들은 악마에게서 그것을 받으며 그에게 의지한다! (놀랄만한 것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인 토론들이 있음에도, 이 본문들이 전혀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은 그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하다.

예수는 악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는 왕국들 및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 권력을 받기를 거절한 것은 악마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은 오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다. “주님이 신녀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예수의 주변에서 또 한 처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서 우리가 국가라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정치 권력이란 악마의 소유물이었으며 또한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받은 것은 악마로부터였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러므로 한마디의 말을 더 할 수 있다. 왜 악마인가? 어원적으로 **디아볼로스 diabolos**는 어떤 인물이나 아니라 “분열시키는 자”를 뜻한다. 그렇게 국가 및 정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대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악마는 원시적으로 단순화된 상상의 산물도,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심판에 관계된 것이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성찰에 의한 표현이다. 그것이 폭동과 내전을 촉발했던 하스몬 왕조와 헤로데 왕조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던 무서운 분열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음은 자명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치 권력에 적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체질적’ 경향 및 구조가 어떠한든 간에 그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권력의 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권력을 경멸했으며 모든 권위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권력이 어떠한 것이었든 그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급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들은 이 “게릴라 예수”의 마지막 몇 년에 대해 이미 많은 말들을 해왔으며 또한 민중이 그가 로마인들을 쫓아내 줄 것이라고 믿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두 주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게릴라 예수에 대해 카르도넬 (P. Cardonnel) 이 말한 것 같은 이야기들을 확증해 줄 만한 근거는 사실 없다. (성전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예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개의 겹에 대해 하신 다음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다” 등으로부터 카르도넬은 제자들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 씀이라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다음의 근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제자 중에는 폭력을 사용자는 파르티잔이었던 혁명당 (젤롯당) 이 있었으며 (시몬, 유다), 또한 정보능력을 갖추고 공생을 추구한, 로마인들과 함께 한 협력자들도 있었다 (마태오)⁴⁷.

그들은 결코 폭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만일 예수가 폭력을 추구하는 우리의 우두머리였다면 다음의 이유 때문에 그는 바보일 수밖에 없다. 그는 자기 여정, 특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아무 전략도 없이 그저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오류가 있다. 모든 유대인이 걱정 한 것이 로마의 침략자들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었다고 믿는 주장이다. 이 교도에 대한 증오, 침략자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지, 로마인들이 저지른 대학살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유대애국자들은 유다의 왕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들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와 헤로데 왕가를 몰아내고자 하는 의지, 이 두 정서가 서로 결합하였고 사람들은 — 에세네파 같은 신비주의자들조차도 — 권력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나 유대민중에게 진정한 해방을 안겨 줄, 영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이면서도 군사력에 의한 권력을 세울, “정의의 주”로서의 신비스러운 어떤 인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시대 유다의 여러 묵시사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이 아나키즘적인 희망을 품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예수가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때 복음서는 그가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악마’는 그를 세 번 시험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시험이다. 원수 (악마-편집자주) 는 예수를

들이 이끈 이 투쟁은 온전히 보존되었고 여기서 역시 왕권에의 해사라져야 마땅할 이 선언들 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심이 확인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이 반反군주적, 반反국가적인 정서가 지속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 두 가지 더 할 이야기가 있다. 4 세기 무렵, 일반적으로 『전도서』라고 불리는 놀라운 책이 발견되었는데, 이 책은 지속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면은 전도자의 이름이 위대한 왕이자 권력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처음부터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치 권력이란 “허무와 바람을 쫓는 것”이라고 말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는 왕권을 더 얻을 수 없는 데까지 얻었으며 궁전들을 건축하게 하였고 예술을 진흥시키는 등등을 했지만 허무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지 정치 권력에 대해 그러한 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재판하기 위해 세워진 그곳에 놀음이 있으며, 정의를 선포하라고 세워진 그곳에 놀음이 있다”(전 3:16) 우리가 나중 에관료주의 (위계질서의 딸!) 라고 부르는 것 안에 이미 악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지방에서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과 법정의 대항 유린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명령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감시하에 있으며 그들 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아이러니한 말로 결론을 내린다. “백성에게 유익한 것은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지독할 정도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남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는 때가 되면 화를 입는다.”(전 8:9) 그리고 결국 죽음의 아이러니로 돌아간다. “임금 욕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마라. 부자 욕은 침실에서도 하지 마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전 10:20) 그렇게 정치 권력은 곳곳에 첩자를 풀어놓고 있으니 네가 살고 싶다면 네 방 안에서조차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끝으로, 마지막 할 말은 이 유대 왕조의 종말에 대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그리스에 의해 정복되었고 셀류시드 왕조 (3 세기에 멸망)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유대애와 예루살렘을 해방하기 위한 마카베오의 유대 혁명이 시작된다. 이 마카베오가문의 오랜 피로물든 해방 전쟁은 기원전 163 년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 몇몇 정파들이 권력 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식민독재”에서 빠져 나온 유대인들은 극단적으로 부패하고 궁정 암투로 점철된 하스몬 왕조의 유대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왕중 한 명은 어머니를 굶어 죽게 했으며, 어떤 왕은 형제들을 암살하기도 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하스몬 왕조에 적의를 가졌고 민중은 왕조를 혐오한 나머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내몰려고 외국 왕을 부르 고자 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추락은 끝이 아니었으니 정치 권력 전반에 대해 기원전 1 세기에 생겨난 민중의 적대감이 이를 설명해 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조의 이러한 붕괴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로마인들이 기원전 65 년 팔레스타인에 진출하기 시작하며 폼페이우스는 예루

살렘을포위하여참혹한학살과함께전쟁을끝낸다. 그리고폼페이우스가 로마로개신할때하스몬왕조의마지막왕아리스토틀로스는전쟁포로행렬에모습을드러냈다. 그러자유대의유력한가문들간의가증스러운왕위 계승다툼이시작된다. 이러한세상에서하느님의법및건고한신앙은설자리가없었다!

결국, 카이사르의한피후견인의아들이었던헤로데가로마인들에의해갈릴래아의행정관으로지명을받았다. 그는강압적인정책을시행하였으며지독한강탈의세상질서를확립하였다. 그는주요한산적들의두목을 잡아죽였다. (권력과싸우던게릴라가순수하고단순한산적으로전락했기때문이었다.) 그의반대자들은 (사람을죽이고살릴수있는유일한기구였던) 산헤드린의권력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정치적’최고기구인산헤드린에그를제소했다.(하지만사실상산헤드린은실제적인권력을상실했다아무일도할수없었다!) 그러나로마의권력을등에업은헤로데는이늘소심했던산헤드린앞에서확신과거만함으로군림했고산헤드린은그에게 감히아무선고도내릴수없었다! 헤로데는군대를대동하고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그의아버지는새로운전쟁을시작하지못하도록그를막았다. 그럼에도그의권력은계속커지기만했다! 그리고결국기원전 37 년, 그는사실상전팔레스타인의왕이되었으며그것은로마의“동맹왕”이었다.

그의결에는로마총독이있었다. 그러나헤로데는그의권력아래있지 않았다. 헤로데는로마의 (나중에황제가될) “제 1 시민 (아우구스투스-역자주)”의직속부하였다. 그리하여권력을등에업은헤로데는주목할 만한정치적사업들을시작했다. 우선그는경찰통제하의출출한행적으로 전국을재편했다. 그리고그는건축정책을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를기리는마을들및화려한아우구스투스신전을건축했고, (그는동방전체에서로마황제숭배를전파시켰던사람중하나였다!) 완전히새로운항구를만들었으며예루살렘성벽을개축하였고, 마지막으로기원전 20 년이스라엘의하느님을위하여새성전을건축하였으며 (사실상이전성전의개축이었다!), 성전들을확장하였고 (뜰을지지하는벽들을높이세웠는데그중 하나가유명한‘통곡의벽’이다), 금과화려한장식등으로치장한건물을세웠다. 이러한업적을통해그는“대헤로데 (헤로데대왕)”이라는칭호를얻었다. 하지만이건축물들이의미하는것은백성의고혈을짜내건은세금, 노역그리고노예화였다. 그런데이국가가 150 년간의내전과수없는황폐화에서갯바위였던데다기아에자주시달렸음을잊어서는안된다. 정부는어떤수단을썼는가. 바로폭력과테러였다. 그가불잡았던단하나의현실은바로로마및로마황제의우정과지원이었다. 그는기원후 4 년에죽었으며그가족자계승권을놓고또한번의내전이있었으므로로마는이내전을이유로헤로데의지배권을몰수하기에이르지만결국아들중하나인헤로데안티파스가갈릴래아와옛영토들의지배권을얻게되었다. 그의일생은광기, 방탕그리고범죄로점철되었다.

이렇게역사를되짚어가는것은다음을이해하기위해서다. 이시기, 그러니까로마지배의시기이자 (유대하스몬독재때보다훨씬부드러운통치의시기였다!) 헤로데가문의폭력의시대에이스라엘민중의반응은어떠했을까? 신기한것은 (예언자다니엘의책을제외하고) 민중또는답비들이하느님의영감으로쓰였다고믿던책들이이시기에더는발견되지않는다는것이다. 세례자요한의때가오기전까지더이상의예언자는없다. 우리가발견하는것은두가지반응이다. 하나는폭력으로, 이지저분한권력을끌어내리고로마지배를축출하여야한다는반응이다. 그때부터국가는지도자라는사람들간에벌어진쟁투의먹잇감이되었을뿐만아니라왕조와로마에대항하여싸우면서요인들에대한테러및살등을예사로벌이던 (산적이라고도불렸던!) 게릴라들이발흥하고총횡무진하는땅이되었다. 그앞에서‘경건한사람들’은이무서운세상으로부터모습을감추게된다. 그들은종교적으로열렬한공동체를이루어이세상의일에는관여하지 않고오직예배와기도에만전념한다. 그리고이들가운데“묵시사상”이라는사조가생겨나는데, 이사조는한편으로는세상의종말을예언하는것이었으며 (이는오래전부터알려져온것이였다. “황폐의상징인홍측한우상이있어서는안될곳에선것을보거든...”하스몬왕조및헤로데왕조시대에대한요사로이만한것이또있겠는가!), 다른한편으로는모든것을제대로되돌리고자, 그리하여하느님나라를다시세우고자오실하느님의메시아, 그의도래를예언하는것이였다. 그러나어쨌건간에이두사조는국가및정치권력그리고그조직의가치를완전히부정하였다.

2. 예수

그러므로예수가태어나는것은이러한시대상황아래서다. 그리고『마태오의복음서』가전하는첫번째사건을우리는무심하게지나칠수없다. 권좌에서내려와본적없는대헤로데에게베들레헬에서막태어난한아가물고온소란은그아이가이스라엘의메시아일지모른다는것이다. 그는즉시이것이만들어낼위험을감지하고베들레헬과그인근에서태어난두살아래의아이들을모두죽이라는명령을내린다! 이것이역사적사실인지아닌지는여기서는중요하지않다. 중요한것은그일의소문이퍼졌고, 초기그리스도인들에의해수집되었으며 (그들이유대인들이었음을잊지말자!) 그들이하느님의영감으로쓰였다고인정한분문에수록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은그들이헤로데를어떻게평가했는지, 또한그의뒤에있는권력이어떠한것이있는지를잘보여준다. 그리고어린예수의첫번째접촉은바로정치권력에대한것이였다! 이말은정치권력에대한예수의훗날의태도에영향을미쳤다는것이아니라, 의심할여지없이그의어린시절에비친이미지가그랬다는것이다.